

2008年 2月

教育學碩士(英語教育)學位論文

中・高等學校 英語教科書에 나타난
意思疏通機能 分析과 效率的인 指導方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朴 仁 洙

中・高等學校 英語教科書에 나타난 意思疏通機能 分析과 效率的인 指導方案

An Analysis of Communicative Function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and its Effective Teaching Methods

2008년 2월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朴 仁 洙

中・高等學校 英語教科書에 나타난
意思疏通機能 分析과 效率的인 指導方案

지도교수 염 규 을

이 논문을 教育學碩士(英語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朴 仁 洙

朴仁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차	iii
ABSTRACT	iv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C.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A.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5
1. 시대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정의	5
2.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수요목	7
1) 개념-기능 중심의 교수요목	7
2) 과업중심의 교수요목	8
3) 의사소통적 교수요목	9
B.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이론적 배경	10
1.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0
2.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학년별, 단계별 성취기준	12
 III. 분석 자료 및 방법과 기준	 16
A. 분석 자료	16
B. 분석 방법과 기준	17

1. 단계별 의사소통기능 제시비율 및 분포 분석 방법	17
2.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분석방법 및 기준	18
IV. 자료 분석 결과	20
A. 학년(단계)별 교과서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분석	20
B. 교과서 학년(단계)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분석	25
1. A교과서 분석	25
2. B교과서 분석	28
3. C교과서 분석	31
4. D교과서 분석	34
5. E교과서 분석	37
C.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학년 간 연계성 분석	41
V. 의사소통기능의 효율적 지도방안	56
A.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효율적 지도방안	56
B.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교수기법	56
C.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들	58
VI. 결론 및 제언	68
참고 문헌	71
부 록	73

표 목 차

[표 1] 영어 교과서 분류(5종)	16
[표 2]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제목	17
[표 3]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분석 기준	19
[표 4] 중학교 1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20
[표 5] 중학교 2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21
[표 6] 중학교 3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23
[표 7] 고등학교 1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24
[표 8] 교과서 A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26
[표 9] 교과서 B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29
[표 10] 교과서 C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32
[표 11] 교과서 D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35
[표 12] 교과서 E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38
[표 13] A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41
[표 14] B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44
[표 15] C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47
[표 16] D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50
[표 17] E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53

ABSTRACT

An Analysis of Communicative Function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its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soo Park

Advisor : Prof. Gyu-eul Yom Ph. 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unicative functions in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which are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explicit communicative functions in each textbook from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to the 1st year of high school.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criteria prescribed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refore, the communicative function is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social activity, the exchange of factual information, the expression of intellectual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the expression of moral attitude, persuasion and request and problem-solving. And the seven categories are subdivided into 47 items including some useful example sentenc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high frequency in each grade from 1st

grade of middle school to 1st year of high school were ‘intellectual attitude’, ‘information exchange’ and ‘emotional expression’ but ‘the expression of moral attitude’ and ‘persuasion and request’ were the lowest frequency communicative functions.

Second, the 5 kinds of English textbooks in each grade were not focused on only one communicative function. For instance, the 1st grade textbooks of middle school through all the 5 kinds of English textbooks show that ‘the exchange of factual information’ and ‘the expression of intellectual attitude’ among the seven categories have the highest total percentage 128.7%, 119% individually as presented in page 20. The 2nd grade textbooks of middle school through all the 5 kinds of English textbooks show that ‘the expression of intellectual attitude’ and ‘emotional expression’ among the seven categories have the highest total percentage 123.9%, 118.3% individually as presented in page 21. The 3rd grade textbooks of middle school through all the 5 kinds of English textbooks show that ‘the expression of intellectual attitude’ has the highest total percentage 161% as presented in page 23. And the 1st year textbooks of high school through all the 5 kinds of English textbooks show that ‘the expression of intellectual attitude’ has the highest total percentage 165.3% as presented in page 24.

Third, each grade’s textbook deals with 18~34 of 47 items except overlapping items, showing 38~72%. Especially, the 1st year textbook A of high school gives 34 items which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On the other hand, the 1st grade textbook B and the 3rd grade textbook D of middle school give 18 items which shows the lowest percentage. And 40~45 of 47 items are dealt throughout all the grades, showing 85~95%.

In conclusion, although the majority of communicative functions are shown throughout the textbooks of the four grades, only about half of 47 items are shown in each grade’s textbook. It is not enough for the 47 items which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commends. And the number of items in each grade's textbook has an effect on the consistency of communicative functions. We can see this fact throughout the result that only about half of 47 items are repeated throughout the whole grad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to attain more efficient learning of communicative functions. First, the teacher should present a variety of meaningful expressions and situations to improve the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of our students in addition to considering various efficient activities such as role-plays, game, information gap, drama, story-telling etc. Second, it is essential that each textbook deals with almost all of the 47 items for the consistency of communicative functions. Last, the teacher must evaluate English textbooks and choose them carefully,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of textbooks in our classrooms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가 간, 기업 간의 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구촌, 지식 정보화 시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인 간, 단체 간, 국가 간의 교류나 정보 검색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수단이 대부분 영어라는 점에서 영어의 실용적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처럼 영어를 곧바로 실생활에서 활발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영어과의 기본 목표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목표 언어인 영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자연스러운 언어입력을 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통한 언어입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의 기본 도구이자 매개체인 교과서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단계형 교육과정은 각 학년마다 2개의 하위 단계를 두어 각각 7a, 7b, 8a, 8b, 9a, 9b, 10a, 10b로 세분화 시키고 있으며, 내용의 이해정도에 따라 각

단계 내에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접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전개를 위해 47개의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학년별로 고르게 다룰 것을 그리고 반복 제시되는 연계성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형 교육과정은 학년 간의 단계 조절 혹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전개를 위해 학년별 연계가 필수적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년별 교사간의 단계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고 더욱이 다양한 논의가 있어도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계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자료로써 교과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위진 영어 교과서가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영어 교육 목표와 방향을 얼마나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는 즉 교실 수업에서의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 의사소통기능이 영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있고 47개 전체 항목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교과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교실에서의 학습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영어교육의 각 단계별 학년별 연계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각 학년별로 효율적인 영어 교육이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려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전체 학년의 교과서를 연구·분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를 연구하기 위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있는 중1~고1까지의 전체 학년의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학년별로 47개 하위 항목의 의사소통기능이 다양하고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단계별 의사소통기능의 연계성이 확립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7차 영어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서들이 단계별로 그것이 제시하는 의사소통기능이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이 나선형적 구조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표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각 학교에서 영어 교과서를 선정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판된 교과서는 중1교과서 15종, 중2교과서 14종, 중3교과서 14종, 고1교과서 15종에 이른다. 이 중에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중1~고1 전체 학년에 걸쳐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는 9개 출판사가 있다. 교과서 선정 시에 특히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전체 학년에 걸쳐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면, 본 연구는 의사소통기능면에서 각 교과서를 비교한 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실수업에서 영어교사들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의 안목이나 의지에 따라 교과서를 재구성을 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선택한 교과서에서 편중되거나 빠진 의사소통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의사소통기능을 다음 단계와의 연계성을 띠며 추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교과서별 첫 단원 맨 앞에 소개되는 명시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우선 교과서별 학년단위로 의사소통기능이 다양하고 고루 분포되어 수록되었는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의 47가지 하위항목을 기준으로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들의 분포표를 만들고, 각 교과서 단계별로 47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몇 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본다. 이에 의해서 교과서별,

단계별 몇 개의 의사소통기능을 수록하는지, 어떤 의사소통기능 항목들이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 학년에 걸쳐 47개의 의사소통기능들이 편중되거나 빠짐없이 제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에서 의사소통기능을 단계별로 서로 연계성 있는 나선형 구조로 배열하였는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발전학습을 위하여 학습내용을 나선형으로 순환 발전시켜 배열할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 단계별 의사소통기능의 분포도를 바탕으로 학년별로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연계성을 갖고 순환 반복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과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시문들은 47개 의사소통기능으로 분류할 때, 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분류와 예시문들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으나, 교과서에 명시된 의사소통기능 명칭과 예시문 중에 47개의 의사소통기능 명칭과 예시문들에 적용되지 않는 예시문이 있어 그 구분에 다소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교과서 예시문 ‘응급처치법 말하기: First, he should cool it in cold water.’의 경우는 하위 항목에 적합한 의사소통기능분류가 없어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지시·금지’ 항목으로 예시문을 분류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교과서별로 각 단원 첫 장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표현된 의사소통기능들이 제외된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령 교과서 제작자들이 학년별로 명시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묵시적으로 제시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까지 연구범위에 포함시켰을 때 각 교과서 학년별로 47개 의사소통기능 중 많은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든지, 또 이것이 학년별로 연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생긴다면 명시적 의사소통기능만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명시적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서 저자들이 묵시적으로 나타내는 의사소통 기능들을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각 학년별로 전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계범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A.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1. 시대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정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소개된 때는 1967년 Dell Hymes가 Chomsky의 ‘언어 능력’에 관한 개념을 반박하면서부터였다. Chomsky (1965:3)는 언어 능력의 개념을 ‘언어 수행’과 구분하면서, 언어 능력이란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유리시킨 화자의 내재적 능력, 즉 문법지식을 뜻하고 언어수행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언어 사용이라고 각각 정의하였다.

Hymes가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것은 바로 이 Chomsky의 ‘언어 능력’이라는 개념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적인 면을 배제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I feel thirsty.’이 ‘목마르다’라는 단순한 명제적 의미 외에도,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Hymes(1974)의 의사소통 능력에는 문법적으로 올바르고 실행가능하며 적절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런 표현을 그 사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사용의 규칙 없이는 문법의 규칙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1970년대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차이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는 언어 규칙 및 형태에 관한 지식과

인간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써, Cummins는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와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를 구분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였다.

CALP란 직접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상황 밖에서의 언어의 표면적 특징을 다루는 것이고 언어 능숙도의 일면을 말한다. 이에 비해 BICS란 모든 어린이들이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인 접촉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습득하는 소통적 능력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Canale & Swain(1980)과 Canale(1983)이 Hymes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그리고 전략적 능력의 4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언어기호 체계의 숙달과 관련되는 것이고 발화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요구되는 음운론적, 통사적, 의미론적, 지식을 통칭하는 것이다.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은 구어이든 문어이든 간에 하나의 독립된 글을 이루기 위해서 문법적인 형태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관한 지식이다. 또한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발화문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은 대화를 수정, 보완, 유지하기 위해 대화자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Brown(1994)은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이 언어체계의 사용을 반영하고 있다면, 사회언어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은 언어의 기능적인 면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1990년대에는 이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Bachman의 이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Bachman은 Canale & Swain(1980)의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을 조직 능력이라는 하나의 범주 밑에 포함시켰다. Canale & Swain의 사회언어적 능력은 두 개의 하위 범주, 즉 화용적 범주와 사회언어적 범주로 분리되었다.

한편, Dubin & Olshtain(1986:70)은 ‘의사소통 능력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언어 능력이 언어 형식을 강조하는 정확성보다는 상황에 따라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즉 유창성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순히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 자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의사교환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적절성에 대한 지식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담화구성 능력, 그리고 비언어적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전략적 능력이 모두 포함된 매우 복합적인 능력인 것이다.

2.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수요목

교수요목이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그 내용은 수업목표 및 개요, 수업방식, 성적 평가 방법, 주간 교수 내용의 요약, 주교재 및 참고교재를 명시한 것이다. 영어과 교수요목은 문법적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 개념-기능 중심의 교수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 상황적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 기능 중심의 교수요목(skill-based syllabus) 그리고 과업 중심의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 의사소통적 교수요목(communicative syllabus), 내용 중심의 교수요목(content-based syllabus) 등 7가지로 대별되나, 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수업지도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교수요목인 개념-기능 중심의 교수요목, 과제중심의 교수요목, 의사소통적 교수요목의 특징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1) 개념-기능 중심의 교수 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

개념 교수요목(notional syllabus)으로도 불리는 개념-기능 교수요목

(notional-functional syllabus)은 기존의 주된 교수요목이었던 문법적 교수요목(grammatical syllabus)과 상황적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두된 것이었다. Wilkins(1976)는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특히 제 2언어 학습의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개념-기능 중심의 교수요목은 의사소통 기능 범주에 근거하여 언어 내용을 구성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고려한 의미 범주로 내용을 교수·학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기능의 범주는 Making suggestions, Asking directions, Giving directions, Introducing yourself 등이며, 의미의 범주로는 Location, Duration, Ability등의 항목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한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구조에 맞추어 난이도 순으로 배열한 구조주의 교수요목이나, 단순한 상황 중심의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황적 교수요목과는 달리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언어를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역동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습자의 연령과 사회적, 문화적, 직업적 필요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을 세분화하고 학습자에게 가장 흥미있는 주제나 화제를 내용으로 구성하여 가르치도록 한다.

2) 과업중심의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

과업중심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은 외국어 교육을 할 때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구조가 아닌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요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진(1997: 615)은 과업이란, 학습 목표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상호작용 하는데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의미중심의 활동중 하나라고 정의하면서 Nunan(1991:279)이 열거한 과업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 (1) 과업은 학습 목표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학습을 강조한다.
- (2) 과업은 구어적이며 자연적인 내용을 학습장면에 소개한다.
- (3) 과업은 학습자가 언어만이 아니라 학습과정 자체를 강조할 기회를 제공한다.
- (4) 과업은 교실에서의 학습에 공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학습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고취시킨다.

(5) 과업은 교실에서의 언어학습을 교실 밖에서의 언어학습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준다.

상황중심의 교수요목이 예측 가능한 교수요목이라면, 과업중심의 교수요목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 중심의 교수요목이다. 언어능력과 과업수행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언어에 능통한가,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 하는 언어결과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찾게 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과업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언어 형태를 기계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협상하는 것이다.

3) 의사소통적 교수요목(communicative syllabus)

개념적 교수요목에서는 한 가지 언어기능을 가르치는데 매우 다양한 언어 형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위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념적 교수요목이 가진 난점을 해결하고 교실에서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가장 근접하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의사소통적 교수요목(communicative competence)이다.

이 교수요목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나선형 교수요목(spiral syllabus), 가변초점 교수요목(variable focus syllabus) 그리고 균형적 교수요목(proportional syllabus)이다.

먼저 나선형 교수요목은 Widdowson and Brumfit(1981)이 Wilkins의 개념적 교수요목이 언어 학습이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확성과 유창성을 병행하여 성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요목은 문법체계가 사다리형으로 연속되는 단계를 교수요목의 핵으로 이용하면서, 이 연속되는 단계에 다른 모든 중요한 자료들을 관련시킨다. 따라서 개념적, 기능적, 상황적 사항은 기본적인 문법핵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며 상승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가변초점 교수요목(variable focus syllabus)은 Allen(1980)이 연구하였으며, 학습자의 언어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교수, 학습의 초점을 달리 하는 교수요목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구조적으로 간소화된 자료들을 사용하며 주로 구조연습에 주안점을 둔다. 중급단계에서는 언어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담화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간소화된 자료로 담화연습을 주로 한다. 고급단계에서는 언어사용에 관하여 도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이나 주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한 자유로운 연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적 교수요목(proportional syllabus)에서는 Yalden(1983)이 언어형식과 의사소통 기능의 요소를 분리시키지 않고 배합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초급단계에서는 의사전달 활동보다 문법과 발음위주로 하여 언어형태를 이해 하고 의사전달 단계인 중급단계에서는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한 대인관계와 담화기술을 위주로 하여 교재영역을 강조하면서도 문법학습은 계속 이어진다. 고급단계에서는 교과목이나 주제에 적합한 전문화된 내용을 다루며 언어형태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만 고려되어 진다.

B.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

1. 제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

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서 우리 소중한 문화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되도록 생활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문화를 외국에 정확하게 알리고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제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어 교육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신장과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이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일상생활과 일반적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 3)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교육인적자원부, 1997, p.29).

즉, 영어 교육의 목표를 크게 ‘의사소통’과 ‘문화’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형과 문법 대신에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7개의 상위 항목으로- ‘친교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인 태도 표현’, ‘설득과 권고’, ‘문제 해결’-크게 구분하고 각기 세분화 하여 47개의 하위항목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소재에서도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의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가정, 학교, 여가, 사회생활, 문화이해 등 광범위한 소재를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고무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어인 영어를 사용하여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고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여 세계인과 함께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6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언어 재료 가운데 ‘문화’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1997, p.35).

2.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학년별, 단계별 성취기준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단계별 성취기준에서 중학교 1학년(7-a, 7-b 단계), 2학년(8-a, 8-b 단계), 3학년(9-a, 9-b 단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10-a, 10-b 단계)까지 ‘듣기-말하기’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소통기능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언어의 4기능 모두 포함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어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부분과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 ‘듣기-말하기’부분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7-a, b (중1) 단계에서 10-a, b (고1) 단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은 1개 학년을 1단계로 하되,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 a, b를 두어 운영한다. 동일 하위 단계 내에서도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성취 기준은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성취 기준을 제시한다. 학년/단계별 성취 기준은 이전 학년/단계의 성취 기준을 누적하여 적용한다.(제 7차 교육과정 p32참조)

먼저, 중학교 1학년, 7-a 단계 듣기 성취 기준은 학생들의 흥미와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소재 및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소재 선정의 기준으로는 학생의 흥미와 배경 지식, 지도상의 이점, 실용성, 집필 및 선택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진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인 중심의 화제와 주제로 시작하여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 국가생활, 세계, 우주 등의 소재로 확대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듣고 표나

그림을 완성하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통하여 사건의 논리적인 관계와 근거를 이해시킨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학습자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해 짧게 설명하고,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세부사항을 말하고, 그림이나 표를 완성한 자료를 통하여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부여하고 문제 해결과 과제 수행을 위해 학습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며, 간단하고 쉬운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대화문의 상황을 바꾸어 친구와 대화해 보고, 실물, 그림, 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비교하여 말한다.

중학교 1학년, 7-b 단계 듣기 성취 기준의 단계에서는 대화자 간의 어조와 근거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하며 대화자 간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대화 내용을 이해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 관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련의 사건들을 순서에 일치하게 이야기를 한다. 더불어 일상생활에 관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나 미래의 계획이나 의지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들은 다음 글의 이야기를 완성하여 말을 하거나, 좋아하는 짧은 내용의 글을 암송하여 발음과 억양을 명확하게 하여 말하기 연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 8-a 단계 듣기 성취 기준은 하향식 정보 처리 과정(top-down processing)을 통해서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 즉, 학생들은 부분적, 구체적인 언어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친밀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들려주고 적절한 그림이나 상황을 고르도록 하는 활동으로 듣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주제나 요지를 이해하며, 이야기, 대화, 묘사 등과 같이 다양한 말을 접하도록 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7-a, 7-b 단계보다는 한 층 높은 내용을 다루고, 학생에게 친밀하나, 개인적 생활과 학교생활로부터 벗어난

내용을 다룬다. 비교적 짧고 친밀한 내용의 글을 듣고, 그것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며, 중대한 일이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강세와 운율, 억양에 맞도록 사용한다. 친밀한 내용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켜 묘사와 설명을 하고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관심 있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거나 묘사한다.

중학교 2학년, 8-b 단계 듣기 성취 기준에는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대화의 장소, 참여자, 대화의 의도와 목적을 추론하는 것을 뜻한다. 서로 다른 입장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말을 듣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비교, 대조한다. 친밀한 내용을 듣고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와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근거를 찾는 듣기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짝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흥미와 경험을 관련지어 듣기와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7-a와 7-b 단계 보다는 한 단계 높은 내용을 활용하고, 학습자에게 친밀하나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룬다.

중학교 3학년, 9-a 단계의 듣기 성취기준은 일반적 화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이해하며, 평범한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와 요지를 이해한다. 전체적인 글의 상황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긴 지문을 듣고 글의 지시에 따라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듣기활동을 한다.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론을 추론해본다. 또한 일반적 주제에 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관해 큰 어려움 없이 대화한다. 쉬운 말을 듣고 세부 사항에 대해 말한다. 짧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 결말을 완성해보거나 등장 인물의 상황을 바꾸어 비교적 긴 역할극을 한다.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다시 표현한다.

중학교 3학년, 9-b 단계의 듣기 성취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평범한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며,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한다. 또한 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 때로는 대화 속에 대부분의 암시가 들어 있지 않더라도 몇 개의 암시와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대상과 상황, 목적에 맞게 적절히 대화하며, 요지와 세부 사항을 말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상하거나 가정해서 말해본다. 관심 있는 시나 노래를 암송하거나 부른다.

고등학교 1학년, 10-a 단계의 듣기 성취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하며 대의 및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배경, 등장인물, 사건의 전개 등 이야기의 구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을 듣고 비교 해본다. 짧고 명료한 안내방송을 듣고 이해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대해 비교적 막힘없이 대화한다.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친숙한 주제에 대해 발표할 수 있고 짧은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추측하여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10-b 단계의 듣기 성취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요지를 추론하며, 화자의 주관적 견해와 객관적 사실을 구별한다. 평범한 이야기에 관한 덜 친숙한 말을 듣고 내용 요약을 한다. 또한 간단한 토론을 듣고 다양한 입장을 비교해 보며, 일반적 주제에 관한 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전개 방식, 원인과 결과, 결론과 근거 등을 이해한다. 말하기 성취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비교적 정확하게 막힘없이 대화한다. 일반적인 글을 읽고 자기주장을 말한다. 특정한 화제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친숙한 주제에 관해 안내 토론을 하고 특정한 주제나 목적에 맞게 짧은 연설을 한다.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과 기준

A.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7-a, 7-b), 2학년(8-a, 8-b), 3학년(9-a, 9-b)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10-a, 10-b) 공통영어 과정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있는 전 학년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9종의 교과서 중에서 의사소통기능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난이도가 고른 분포로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어교과서 5종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교과서의 출판사를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A부터 E까지 알파벳순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영어 교과서 분류(5종)

교과서 명칭	저 자	출 판 사
A	배두본 외	(주)교학사
B	강홍립 외	대한 교과서(주)
C	김충배 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D	이병민 외	(주)천재교육
E	김임득 외	(주)현대영어사

본 연구의 의사소통기능의 구체적인 연구 자료들은 교과서별로 매 단원 시작하는 첫 장에 명시적으로 수록되어있는 의사소통기능(communicative functions) 예시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교과서별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에 대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제목

교과서 \ 제목	중1 교과서	중2 교과서	중3 교과서	고1 교과서
A	학습요점	학습요점	학습요점	Communicative Functions
B	Goal (Listen, Speak)	Goal (Listen, Speak)	Goal (Listen, Speak)	Key Functions
C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D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E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기능	Communicative Functions

B. 분석 방법 및 기준

1. 단계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분포 분석 방법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교과서의 매 단원 첫 장에는 단원별로 학습해야 할 의사소통기능들과 예시문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 의사소통기능들과 예시문들은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보여주는 47개의 하위항목과 예시문들에 근거해서 분류될 수 있다. 이 분류 방법을 통해서 먼저 전체 학년(중1~고1학년)의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를 각 학년을 단위로 분석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각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의사소통기능은 무엇이며, 또한 누락된 것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47개 하위항목과 예시문들에 기초해서 각 분석대상의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의사소통기능들을 교과서별로 전체 학년(중1~고1학년)과 전 단원에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여 각 교과서

학년별, 전체 학년에 걸쳐 47개 하위항목들이 다양하고 적절하게 분포되었는지 분석하고, 47개 하위항목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몇 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비율이 몇 %에 해당되는지, 몇 개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몇 %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각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의 분석 기준으로 삼았던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47개 하위항목과 예시문들은 부록에 기재하였으며, 각 교과서별 분석대상인 의사소통기능들도 부록에 추가로 기재하였다.

2.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분석방법 및 기준

각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분포표를 바탕으로 각 교과서 학년별로 동일한 의사소통기능 세부항목에 속해있는 예시문을 찾고 기능별, 학년별로 분류해 표로 만들었다. 이 학년 간 의사소통기능 연계표를 바탕으로 각 교과서 학년별로 몇 개의 항목이 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몇 %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세부적으로는 같은 기능 속 예시문들이 동일한 형태의 예시문으로 반복되는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학년별로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저자가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연계성에서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의사소통기능들을 교과서별로 전 단원에 명시적으로 수록된 모든 예시문들을 전체 학년(중1~고1학년)에 걸쳐서 빠짐없이 표에 기록하였다.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각 교과서들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 부합하도록 연계성을 갖고 제작되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준이 되는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상위항목 7개와 하위항목 4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항목에는 2~4개 정도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항목 기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3]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분석 기준

	상위항목	하 위 항 목	
1	친 교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하기/ 안부 묻기/ 안부 묻기에 답하기/ 안부를 제3 자에게 부탁하기) ◦소개 (자기소개하기/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 소개에 답하기) ◦감사 (감사 표현하기/ 감사 표현에 답하기) ◦주의 끌기 ◦칭찬, 축하, 감탄 (칭찬하기/ 축하하기/ 칭찬/ 축하에 답하기/ 감탄하기/ 격려하기) ◦약속(약속제안하기/ 제안에 답하기) ◦기원 ◦음식 권유, 응답 (음식 권하기/ 승낙, 거절하기) ◦대화의 시작, 끝맺음 	
2	사실적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확인하기, 확인에 답하기), ◦사실묘사, ◦습관, ◦경험(경험 묻기 및 말하기) ◦계획, ◦수정, ◦비교 	
3	지 적 태 도 표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나 반대 (동의를 묻거나 말하기/ 반대하기) ◦제의, 초대 (제의, 초대하기/ 제의, 초대 수락하기/ 제의, 초대 거절하기) ◦제안 (제안하기/ 승낙하기/ 거절하기) ◦기억 (기억 여부 묻기 및 답하기) ◦가능, 불가능 (가능성 묻기 및 표현하기/ 불가능 표현하기) ◦확신하기 (확신 여부 묻기/ 확신, 불확실 말하기) ◦의무 ◦허락 (허락 요청하기), ◦지시, 금지(지시하기/ 금지하기) ◦의견표현 (의견 묻기/ 자신의 의견 말하기) 	
4	감 정 표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아함, 싫어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묻기/ 말하기) ◦희로애락 (기쁨, 슬픔 표현하기/ 슬픔을 위안하기/ 화난 것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원하는 것 (원하는 것 묻기/ 원하는 것 말하기) ◦동정 (동정 표현하기), ◦불평 ◦소망, 의지 (소망, 의지 묻고 말하기/ 기대 표현하기) 	
5	도덕적인 태도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과, 변명 (사과하기/ 변명하기/ 사과, 변명에 답하기) ◦후회, ◦관심 (관심 묻기/ 관심, 무관심 말하기) 	
6	설득과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득, ◦요청(요청하기/ 요청에 답하기), ◦충고(충고하기/ 충고 요구하기), ◦경고 	
7	문 제 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인과 결과, ◦길 안내, ◦물건 사기,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IV. 자료 분석 결과

A. 각 교과서 학년(단계)별 의사소통기능 제시비율 및 순위 분석

분석은 각 교과서별로 각 단원 첫 장에 명시적으로 수록된 의사소통기능 (communicative functions) 예시문들을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상위항목 7개(친교활동, 사실적 정보교환, 지적태도표현, 감정표현, 도덕적 태도표현, 설득과 권고, 문제 해결)와 하위항목 47개로 나누어 단계(학년)별로 의사소통 기능의 상위 항목 제시 비율과 순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학교 1학년 5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상위 항목 제시 비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학교 1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상위 항목	A		B		C		D		E		합 계
친교활동	11.1%	5	13.8%	3	16.2%	3	21.4%	1	16.6%	3	79.1%
사실적 정보교환	22.2%	2	41.6%	1	29.7%	1	21.4%	1	13.8%	4	128.7%
지적태도표현	25.0%	1	22.2%	2	24.3%	2	14.2%	3	33.3%	1	119.0%
감정표현	19.4%	3	8.3%	5	16.2%	3	10.7%	6	22.2%	2	76.8%
도덕적 태도표현	2.7%	7	X	6	X	7	3.5%	7	2.7%	6	8.9%
설득과 권고	5.5%	6	X	6	2.7%	6	14.2%	3	2.7%	6	25.1%
문제해결	13.8%	4	13.8%	3	10.8%	5	14.2%	3	8.3%	5	60.9%

(X표시는 의사소통기능 예문이 빠진 것을 의미함)

각 교과서의 각 단원 첫 장의 명시적 의사소통 기능 수록 비율과 순위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상위 항목 7개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비교적 ‘도덕적 태도 표현’과 ‘설득과 권고’항목에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종 교과서 중에서 2종(B와 C교과서)에는 ‘도덕적 태도 표현’항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설득과 권고’항목은 5종 교과서 중에서 1종(B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사실적 정보 교환’과 ‘지적 태도 표현’ 항목이다. 각 교과서별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위 두개의 상위 항목의 총 합계는 128.7%, 119%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정보 교환’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22.2%), B교과서(41.6%), C교과서(29.7%), D교과서(21.4%), E교과서(13.8%)이다. 또한 ‘지적 태도 표현’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25.0%), B교과서(22.2%), C교과서(24.3%), D교과서(14.2%), E교과서(33.3%)이다. 그리고 D교과서에서 ‘친교활동’과 ‘사실적 정보교환’의 항목은 가장 많이 제시되고 비율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친교 활동’과 ‘감정 표현’ ‘문제 해결’ 항목 순의 비율로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항목 47개를 모두 수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비교적 높은 빈도수로 수록된 ‘사실적 정보 교환’과 ‘지적 태도 표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5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상위 항목 제시 비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중학교 2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상위 항목	A		B		C		D		E		합 계
친교활동	18.4%	3	11.1%	4	8.5%	5	8.3%	4	13.8%	4	60.1%
사실적 정보교환	10.5%	4	38.8%	1	14.2%	3	20.8%	2	11.1%	5	95.4%
지적태도표현	26.3%	2	13.8%	3	22.8%	2	33.3%	1	27.7%	1	123.9%
감정표현	31.5%	1	16.6%	2	31.4%	1	16.6%	3	22.2%	2	118.3%
도덕적 태도표현	2.6%	6	2.7%	7	5.7%	6	8.3%	4	2.7%	7	22.0%
설득과 권고	X	7	5.5%	6	5.7%	6	4.1%	7	5.5%	6	20.8%
문제해결	10.5%	4	11.1%	4	11.4%	4	8.3%	4	16.6%	3	57.9%

(X 표시는 의사소통기능 예문이 빠진 것을 의미함)

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도 5종 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를 보면 각 단위 첫 장의 명시적 의사소통 기능 수록 비율과 순위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상위 항목 7개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비교적 ‘도덕적 태도 표현’과 ‘설득과 권고’항목에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종 교과서 중에서 1종(A교과서)에만 ‘설득과 권고’항목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사실적 정보 교환’ 항목들이다. 각 교과서별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위와 같은 항목의 총 합계는 123.9%, 118.3%, 9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실적 정보 교환’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10.5%), B교과서(38.8%), C교과서(14.2%), D교과서(20.8%), E교과서(11.1%)이다. 또한 ‘지적 태도 표현’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26.3%), B교과서(13.8%), C교과서(22.8%), D교과서(33.3%), E교과서(27.7%)이다. 그리고 ‘감정 표현’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31.5%), B교과서(16.6%), C교과서(31.4%), D교과서(16.6%), E교과서(22.2%)를 보이고 있다.

1학년 교과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2학년 교과서에서도 ‘도덕적 태도 표현’과 ‘설득과 권고’ 항목은 가장 낮은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해결’과 ‘친교활동’의사소통기능은 비교적 다양하고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다. 1학년 교과서에 이어 ‘사실적 정보교환’의사소통기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B교과서(41.6%→38.8%)이다.

이어서 중학교 3학년 5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상위 항목 제시 비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중학교 3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상위 항목	A		B		C		D		E		합 계
친교활동	16.6%	3	13.8%	4	17.7%	2	8.3%	6	X	7	56.4%
사실적 정보교환	6.2%	5	5.5%	6	11.1%	5	16.6%	2	11.1%	3	50.5%
지적태도표현	27.0%	1	33.3%	1	24.4%	1	29.1%	1	47.2%	1	161.0%
감정표현	14.5%	4	16.6%	2	17.7%	2	12.5%	5	16.7%	2	78.0%
도덕적 태도표현	6.2%	5	2.7%	7	2.2%	7	X	7	2.8%	6	13.9%
설득과 권고	18.7%	2	16.6%	2	15.5%	4	16.6%	2	11.1%	3	78.5%
문제해결	10.4%	7	11.1%	5	11.1%	5	16.6%	2	11.1%	3	60.3%

(X표시는 의사소통기능 예문이 빠진 것을 의미함)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도 5종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를 보면 각 단위 첫 장의 명시적 의사소통 기능 수록 비율과 순위가 약간씩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상위 항목 7개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도덕적 태도 표현’과 ‘사실적 정보교환’ 항목에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종 교과서 중에서 D교과서에는 ‘도덕적 태도 표현’항목이, E교과서에는 ‘친교활동’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의사소통기능 항목들은 ‘지적 태도 표현’, ‘설득과 권고’ ‘감정 표현’,이며, 교과서별 각 항목의 총 합계는 161.0%, 78.5%, 78.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 태도 표현’기능으로 A교과서(27.0%), B교과서(33.3%), C교과서(24.4%), D교과서(29.1%), E교과서(47.2%)이다. 또한 ‘설득과 권고’ 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18.7%), B교과서(16.6%), C교과서(15.5%), D

교과서(16.6%), E교과서(11.1%)이다. 그리고 ‘감정 표현’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14.5%), B교과서(16.6%), C교과서(17.7%), D교과서(12.5%), E교과서(16.7%)를 보이고 있다.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와는 다르게 3학년 교과서에는 ‘도덕적 태도 표현’과 ‘사실적 정보교환’ 항목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적 정보교환’과 ‘문제해결’의사소통기능은 비교적 다양하고 적절하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1, 2학년 교과서에 이어 ‘지적태도 표현’의사소통기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E교과서로 1학년(33.3%) 2학년(27.7%) 3학년(47.2%)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 5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상위 항목 제시 비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고등학교 1학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

상위 항목	A		B		C		D		E		합 계
친교활동	14.5%	3	11.1%	3	9.3%	5	12.5%	4	19.4%	2	66.8%
사실적 정보교환	8.3%	5	16.6%	2	4.6%	7	16.6%	3	11.1%	5	57.2%
지적태도표현	25.0%	1	50.0%	1	34.8%	1	25.0%	1	30.5%	1	165.3%
감정표현	20.8%	4	11.1%	3	16.2%	2	20.8%	2	11.4%	4	80.3%
도덕적 태도표현	6.2%	5	2.7%	6	11.6%	4	8.3%	5	8.3%	6	37.1%
설득과 권고	10.4%	2	5.5%	5	9.3%	5	8.3%	5	13.8%	3	47.3%
문제해결	14.5%	7	2.7%	6	13.9%	3	8.3%	5	5.5%	7	44.9%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도 5종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 및 순위를 보면 각 단원 첫 장의 명시적 의사소통 기능 수록 비율과 순위가 약간씩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상위 항목 7개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도덕적 태도 표현’, ‘문제 해결’, ‘설득과 권고’ 항목들에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에서 7개 상위 항목 중 1~3개 정도의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전혀 누락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의사소통기능 항목들은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이며, ‘친교활동’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별 각 항목의 총 합계는 165.3%, 80.3%, 6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 태도 표현’기능으로 A교과서(25.0%), B교과서(50.0%), C교과서(34.8%), D교과서(25.0%), E교과서(30.5%)이다. 또한 ‘감정 표현’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20.8%), B교과서(11.1%), C교과서(16.2%), D교과서(20.8%), E교과서(11.4%)이다. 그리고 ‘친교활동’의사소통기능으로 A교과서(14.5%), B교과서(11.1%), C교과서(9.3%), D교과서(12.5%), E교과서(19.4%)를 보이고 있다.

B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적태도 표현’이 점차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13.8%→33.3%→50%) 또한, ‘도덕적 태도 표현’과 ‘문제 해결’ 항목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친교활동’과 ‘사실적 정보교환’ 항목은 비교적 다양하고 적절하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B. 교과서 학년(단계)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분석

1. A 교과서 분석

교과서A의 의사소통기능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교과서 A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계
친 교 활 동	인사하기	㉘	㉙						㉙		㉙		㉘	0/2/2/1
	소개하기	㉘㉙												0/1/1/0
	감사하기			㉘								㉙	㉙	0/1/0/2
	주의 끌기													0/0/0/0
	청찬, 축하, 감탄	㉙㉙			㉘				㉙	㉙				2/1/1/1
	약속		㉘			㉙			㉘	㉙				0/2/1/1
	기원										㉙			1/0/0/0
	음식권유, 응답			㉙				㉙						0/0/1/1
사실적 정 보 교 환	대화의 시작, 끝맺음	㉙㉙						㉙			㉙			1/0/2/1
	소 계													4/7/8/7
	사실적 정보			㉙				㉙㉘㉙				㉙		2/1/1/1
	사실 확인													0/0/0/0
	사실 묘사							㉙						1/0/0/0
	습관			㉙										1/0/0/0
	경험				㉙	㉙	㉙㉘		㉙					2/1/0/2
	계획		㉙㉙										㉙	1/0/1/1
지 태 도 표 현	수정								㉘					0/1/0/0
	비교					㉘	㉙		㉙					1/1/1/0
	소 계													8/4/3/4
	동의나 반대	㉙㉙								㉙		㉘		0/1/2/1
	제외, 초대								㉘	㉘				0/2/0/0
	제안		㉙㉙	㉘						㉙		㉘		1/2/1/1
	기억												㉙㉙	1/0/1/0
	가능, 불가능	㉘			㉙	㉙					㉙			1/1/1/1
감 정 표 현	확신하기		㉙			㉙	㉘	㉙	㉙	㉙		㉙		0/1/3/3
	의무		㉙		㉙	㉙	㉙		㉙					2/0/2/1
	허락	㉙										㉙	㉙	0/0/1/2
	지시, 금지				㉘									0/1/0/0
	의견 표현	㉙	㉘			㉙	㉙	㉘㉙	㉙㉙	㉙		㉙	㉙	4/2/2/3
	소 계													9/10/13/12
	좋아함, 싫어함	㉙		㉙㉙			㉘		㉙	㉙				3/1/1/1
	희로애락	㉙	㉘		㉙	㉙	㉙				㉘㉙	㉙㉘㉙	㉙	2/3/3/4
문 제 해 결	원하는 것			㉙	㉙		㉙				㉘			0/1/1/2
	동정				㉙㉙				㉘	㉘			㉘	0/3/1/1
	소망, 의지				㉙		㉙㉘	㉘			㉘		㉘㉙	2/4/0/1
	불평				㉙	㉙								0/0/1/1
	소 계													7/12/7/10
	도덕적 태도		㉙㉙	㉘										0/1/2/0
	후회													0/0/0/1
	관심						㉙		㉙	㉙			㉙	1/0/1/2
문 제 해 결	소 계													1/1/3/3
	선택과 권고					㉙					㉙	㉙		1/0/2/0
	요청						㉙			㉙				0/0/1/1
	충고		㉙	㉙㉙㉙		㉙㉙					㉙㉙		㉙	1/0/5/3
	경고							㉙			㉙			0/0/1/1
	소 계													2/0/9/5
	원인과 결과		㉙			㉘		㉙	㉙	㉙		㉙		2/1/2/1
	길 안내						㉙㉙	㉙						1/0/1/1
문 제 해 결	물건 사기				㉙㉙	㉘								1/1/0/1
	음식주문			㉙										0/0/0/1
	되묻기			㉙						㉙	㉙			0/0/2/1
	이해점검				㉘							㉙		0/1/0/1
	전화하기 및 받기							㉙		㉘	㉙			1/1/0/1
	소 계													5/4/5/7
	총 계	3/3/4/4	3/3/4/4	3/3/4/4	3/3/4/4	3/3/4/4	3/4/4/4	3/3/4/4	3/4/4/4	3/3/4/4	3/3/4/4	3/3/4/4	3/3/4/4	36/38/48/48

㉙:중1교과서, ㉘:중2교과서, ㉙:중3교과서, ㉙:고1교과서

위 A교과서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표를 살펴보면 먼저 중1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체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하위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51.1%에 해당하는 24개 항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48.9%에 해당하는 23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인사’, ‘소개’, ‘감사’, ‘주의 끌기’, ‘약속’, ‘음식권유 · 응답’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확인’, ‘수정’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동의나 반대’, ‘제의 · 초대’, ‘확신하기’, ‘허락’,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원하는 것’,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 · 변명’,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요청’,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2교과서로 명시적으로 총 38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시키면 55.3%에 해당하는 26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 44.7%에 해당하는 21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주의 끌기’,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계획’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기억’, ‘의무’, ‘허락’ 항목이고, ‘감정표현’ 기능 중에서는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전체에 해당하는 ‘설득’, ‘요청’, ‘충고’,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길안내’, ‘음식주문’, ‘되묻기’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3교과서로 앞에서 살펴본 중1, 2교과서와는 다르게 각 단원마다 의사소통기능을 명시적으로 4개씩 총 48개의 예시문을 다루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세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66.0%에 해당하는 31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34.0%에 해당하는 16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감사’, ‘주의 끌기’, ‘기원’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경험’, ‘수정’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 · 초대’,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소망 · 의지’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빠진 항목이 없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물건사기’, ‘음식주문’,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끝으로 고1교과서는 중3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총 48개의 의사소통 기능 예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세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72.3%에 해당하는 34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27.7%에 해당하는 13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소개’, ‘주의 끌기’, ‘기원’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확인’, ‘사실묘사’, ‘습관’,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제의·초대’, ‘기억’, ‘지시·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빠진 항목이 없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변명’ 항목이 빠져있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항목이 빠져있다.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전 항목이 수록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학년별로는 평균 61.3%에 달하는 28.8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고 38.7%에 달하는 18.2개의 항목들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학년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 A는 4개의 학년에 걸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47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95.7%에 달하는 거의 모든 기능에 해당하는 45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년에서 빠진 항목으로는 ‘친교활동’ 기능에서 ‘주의 끌기’ 항목과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 확인’ 항목이 있다. 각 항목별로는 전체 학년에 걸쳐 ‘감정표현’의 ‘희로애락’ 항목에 가장 많은 12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중1교과서에서 2번, 중2교과서에 3번, 중3교과서에 3번, 고1교과서에 4번씩 고루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태도’ 표현의 ‘의견 표현’ 항목에 11번 발생하여 두 번째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중1교과서에 4번, 중2교과서에 2번, 중3교과서에 2번, 고1교과서에서 3번씩 고루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득과 권고’의 ‘충고’ 항목이 9번 수록되었고, ‘지적태도 표현’의 ‘확신하기’, ‘감정표현’의 ‘소망·의지’ 항목이 7번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 B 교과서 분석

교과서B의 의사소통기능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교과서 B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계
권 교 활 동	인사하기	㉑	㉑											0/0/1/1
	소개하기		㉑											1/0/0/0
	감사하기							㉑			㉑		㉑	0/1/2/0
	주의 끌기										㉑			0/0/0/1
	청찬, 축하, 감탄			㉑		㉑					㉑	㉑	㉑/㉑	3/1/1/1
	약속								㉑					0/1/0/0
	기원													0/0/0/0
	음식권유, 응답				㉑	㉑		㉑		㉑				1/1/1/1
	대화의 시작, 끝맺음													0/0/0/0
소 계														5/4/5/4
사 실 적 정 보 교 환	사실적 정보	㉑/㉑/㉑/㉑/㉑/㉑	㉑/㉑	㉑/㉑	㉑/㉑	㉑	㉑/㉑/㉑	㉑/㉑/㉑	㉑/㉑	㉑	㉑			12/8/0/3
	사실 확인			㉑								㉑		0/2/0/0
	사실 묘사										㉑		㉑	0/1/1/0
	습관	㉑			㉑					㉑				1/1/0/1
	경험			㉑		㉑				㉑/㉑		㉑		1/1/1/2
	계획										㉑			1/0/0/0
	수정													0/0/0/0
	비교									㉑				0/1/0/0
소 계														15/14/2/6
지 적 태 도 표 현	동의나 반대				㉑		㉑/㉑	㉑	㉑		㉑		㉑/㉑	2/1/3/2
	제외, 초대						㉑							1/0/0/0
	제안	㉑				㉑		㉑				㉑		2/1/0/1
	기억			㉑									㉑	0/0/0/2
	가능, 불가능	㉑		㉑					㉑					1/0/1/1
	확신하기								㉑	㉑		㉑		0/0/1/2
	의무		㉑			㉑								0/0/1/1
	허락			㉑			㉑							0/0/1/1
	지시, 금지							㉑				㉑		1/1/0/0
	의견 표현	㉑	㉑/㉑		㉑	㉑/㉑	㉑	㉑	㉑/㉑/㉑/㉑		㉑		㉑/㉑/㉑	1/2/5/8
소 계														8/5/12/18
감 정 표 현	좋아함, 싫어함			㉑				㉑	㉑		㉑	㉑		2/1/1/1
	희로애락				㉑/㉑	㉑						㉑	㉑	0/1/4/0
	원하는 것			㉑	㉑		㉑					㉑		1/2/0/1
	동정									㉑				0/1/0/0
	소망, 의지								㉑		㉑	㉑/㉑		0/1/1/2
	불평													0/0/0/0
소 계														3/6/6/4
도 덕 적 태 도 표 현	사과, 변명						㉑							0/0/0/1
	후회									㉑				0/0/1/0
	관심		㉑											0/1/0/0
소 계														0/1/1/1
설 득 과 권 고	설득						㉑							0/0/0/1
	요청		㉑/㉑	㉑		㉑/㉑		㉑			㉑		㉑	0/2/5/1
	충고	㉑												0/0/1/0
	경고													0/0/0/0
소 계														0/2/6/2
문 제 해 결	원인과 결과		㉑			㉑						㉑		1/0/2/0
	길 안내									㉑/㉑/㉑				3/0/0/0
	물건 사기			㉑	㉑/㉑/㉑						㉑			1/3/1/0
	음식주문													0/0/0/0
	되묻기		㉑				㉑	㉑						0/1/1/1
	이해점검													0/0/0/0
	전화하기 및 받기													0/0/0/0
소 계														5/4/4/1
총 계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6/36/36/36

㉑:중1교과서, ㉒:중2교과서, ㉓:중3교과서, ㉔:고1교과서

위 B교과서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표를 살펴보면 먼저 중1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체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하위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38.3%에 해당하는 18개 항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61.7%에 해당하는 29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인사’, ‘감사’, ‘주의 끌기’, ‘약속’, ‘기원’,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기억’, ‘확신하기’, ‘의무’, ‘허락’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희로애락’, ‘동정’, ‘소망·의지’,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전체인 ‘사과·변명’,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역시 전체인 ‘설득’, ‘요청’, ‘충고’, ‘경고’ 항목이 빠져있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2교과서로 명시적으로 총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48.9%에 해당하는 23개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빠진 항목으로 51.1%에 해당하는 24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인사’, ‘소개’, ‘주의 끌기’, ‘기원’,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계획’, ‘수정’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제의·초대’, ‘기억’, ‘가능·불가능’, ‘확신하기’, ‘의무’, ‘허락’ 항목이고, ‘감정표현’ 기능에서는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변명’,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충고’,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원인과 결과’, ‘길안내’, ‘음식주문’,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3교과서로 명시적으로 총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다루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4.7%에 해당하는 21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55.3%에 해당하는 26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소개’, ‘주의 끌기’, ‘약속’, ‘기원’,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습관’, ‘계획’, ‘수정’, ‘비교’ 항목이,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초대’, ‘제안’, ‘기억’, ‘지시·금지’ 항목이, ‘감정 표현’ 기능

에서 ‘원하는 것’, ‘동정’, ‘불평’ 항목이,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사과·변명’, ‘관심’ 항목이,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설득’, ‘경고’ 항목이, ‘문제 해결’ 기능에서 ‘길 안내’, ‘음식주문’,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고1교과서는 명시적으로 총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하위항목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6.8%에 해당하는 22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53.2%에 해당하는 25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소개’, ‘감사’, ‘약속’, ‘기원’,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 확인’, ‘사실 묘사’, ‘계획’,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초대’, ‘지시·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희로애락’,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충고’,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원인과 결과’, ‘길 안내’, ‘물건 사기’, ‘음식주문’,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학년별로는 평균적으로 44.7%에 달하는 21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고 55.3%에 달하는 26개의 항목들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학년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 B는 4개의 학년에 걸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47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83%에 달하는 39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년에서 빠진 항목으로는 ‘친교활동’ 기능에서 ‘기원’,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이,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수정’ 항목이, ‘감정 표현’ 기능에서 ‘불평’ 항목이,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경고’ 항목이, ‘문제 해결’ 기능에서 ‘음식주문’,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각 항목별로는 전체 ‘사실적 정보’ 항목에 가장 많은 23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중1교과서에서 12번, 중2교과서에 8번 고1교과서에서 3번 편중되는 분포 때문이다. 그리고 ‘의견 표현’ 항목에 16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중3교과서에서 5번, 고1교과서에서 8번, 편중되는 분포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중3교과서에서 5번의 ‘요청’과 4번의 ‘희로애락’ 항목이 비교적 많은 개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C 교과서 분석

교과서C의 의사소통기능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교과서 C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계
친 교 활 동	인사하기								⑧			⑨		0/1/1/0
	소개하기	㉗	⑨⑨								⑧			1/1/2/0
	감사하기	⑨⑨⑨												0/0/2/1
	주의 끌기					㉗								1/0/0/0
	칭찬, 축하, 감탄			⑨				㉗				⑨		1/0/2/0
	약속										㉗	⑩	⑨	1/0/1/1
	기원	⑩						⑩			⑧			0/1/0/2
	음식권유, 응답			㉗㉗										2/0/0/0
사실적 정 보 교 환	대화의 시작, 끝맺음													0/0/0/0
	소 계													6/3/8/4
	사실적 정보	㉗	㉗㉗㉗	⑨	㉗㉗	⑧								6/1/1/0
	사실 확인				⑨									0/0/1/0
	사실 묘사						㉗				㉗			2/0/0/0
	습관				㉗									1/0/0/0
	경험							㉗	⑧	⑧	⑩	⑨		1/2/1/1
	계획	⑧						㉗						1/1/0/0
지 적 태 도 표 현	수정							⑧	⑨	⑨			⑩	0/1/2/1
	비교													0/0/0/0
	소 계													11/5/5/2
	동의나 반대	⑧			⑩		㉗⑧			㉗⑩	⑨	㉗⑩		3/2/1/3
	제외, 초대									⑧				0/1/0/0
	제안		⑧⑧				㉗⑩							1/2/0/1
	기억		⑩										⑨	0/0/1/1
	가능, 불가능			⑩								⑨⑨⑩	⑩	0/0/2/3
감 정 표 현	확신하기							⑧⑧	⑩	⑨	⑩			0/2/1/2
	의무					⑨				㉗				1/0/1/0
	허락			㉗		⑨⑩								1/0/1/1
	지시, 금지				⑩					㉗				1/0/0/1
	의견 표현	⑩	⑨⑨		⑨	⑨				⑩	㉗	⑩	㉗⑧	2/1/4/3
	소 계													9/8/11/15
	좋아함, 싫어함		⑧	⑩		㉗								1/1/0/1
	희로애락	⑨⑨		⑧⑧⑩	⑧	㉗			⑨⑩		⑧	⑨	㉗⑧	2/5/4/2
문 제 해 결	원하는 것						⑧					㉗		1/1/0/0
	동정										⑨⑩			0/0/1/1
	소망, 의지						⑧⑨⑨ ⑩⑩	㉗⑩	⑧				㉗⑧	2/3/2/3
	불평			⑧							⑨			0/1/1/0
	소 계													6/11/8/7
	도덕적 태도			⑩							⑨⑩			0/0/1/2
	후회												⑩	0/0/0/1
	관심					⑧		⑩⑩			⑧			0/2/0/2
문 제 해 결	소 계													0/2/1/5
	선택과 권고			⑨					⑩					0/0/1/1
	요청							⑨⑨	㉗					1/0/2/0
	충고		⑩⑩		⑧		⑩	⑨⑨	⑨⑨					0/1/4/3
	경고				⑧									0/1/0/0
	소 계													1/2/7/4
	원인과 결과					⑩								0/0/0/1
	길 안내	⑧			⑩		㉗⑨⑨							1/1/2/1
문 제 해 결	물건 사기				⑨							㉗		1/0/1/0
	음식주문										⑨⑨⑩			0/0/2/1
	되묻기				⑩							⑧		0/1/0/1
	이해점검	⑩				⑧⑩								0/1/0/2
	전화하기 및 받기								㉗㉗	⑧				2/1/0/0
	소 계													4/4/5/6
	총 계	2/3/ 4/4	3/3/ 4/3	3/3/ 3/4	3/3/ 3/4	3/3/ 3/3	4/3/ 4/4	3/3/ 4/4	4/3/ 4/3	3/3/ 4/3	3/3/ 4/4	3/2/ 4/4	3/3/ 4/3	37/35/ 45/43

㉗:중1교과서, ⑧:중2교과서, ⑨:중3교과서, ⑩:고1교과서

위 C교과서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표를 살펴보면 먼저 중1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체 37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하위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51.1%에 해당하는 24개 항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48.9%에 해당하는 23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인사’, ‘감사’, ‘기원’,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확인’,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제의 · 초대’, ‘기억’, ‘가능 · 불가능’, ‘확신하기’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전체인 ‘사과 · 변명’,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충고’,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원인과 결과’,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2교과서로 명시적으로 총 35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시키면 51.1%에 해당하는 24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 48.9%에 해당하는 23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감사’, ‘주의 끌기’, ‘칭찬 · 축하 · 감탄’, ‘약속’, ‘응답권유’,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기억’, ‘가능 · 불가능’, ‘의무’, ‘허락’,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표현’ 기능에서는 ‘동정’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 · 변명’,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요청’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원인과 결과’, ‘물건사기’, ‘음식주문’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3교과서로 명시적으로 총 45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을 다루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57.4%에 해당하는 27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42.6%에 해당하는 20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주의 끌기’, ‘기원’, ‘음식권유’,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 묘사’, ‘습관’, ‘계획’,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 · 초대’, ‘제안’, ‘기억’,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좋아함 · 싫어함’, ‘원하는 것’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원인과 결과’, ‘되묻기’,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고1교과서는 명시적으로 총 43개의 의사소통기능 예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세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57.4%에 해당하는 27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42.6%에 해당하는 20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인사’, ‘소개’, ‘주의 끌기’, ‘칭찬 · 축하 · 감탄’,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계획’, ‘비교’의 항목이고, ‘지적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제의 · 초대’, ‘의무’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원하는 것’,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모든 항목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요청’, ‘경고’ 항목이 빠져있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물건 사기’,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학년별로는 평균적으로 54.3%에 달하는 25.5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고 45.7%에 달하는 21.5개의 항목들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학년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 C는 4개의 학년에 걸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47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95.7%에 달하는 45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년에서 빠진 항목으로는 ‘친교활동’ 기능에서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과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비교’ 항목이 빠져있고, 나머지항목들은 전체 학년에 걸쳐서는 모두 수록되어있다. 각 항목별로는 ‘감정표현’의 ‘희로애락’ 항목이 가장 많은 13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1교과서에서 2번, 중2교과서에 5번, 중3교과서에서 4번, 고1교과서에서 2번씩 고루 분포되어있다. 그리고 ‘의견 표현’ 항목과 ‘소망 · 의지’ 항목에 각각 10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의견표현’ 항목에 2번, 1번, 4번, 3번, 소망 · 의지 항목에 2번, 3번, 2번, 3번 씩 중1교과서에서 고1교과서 순서로 고루 분포되어있다. 또한 ‘동의나 반대’ 항목에 9번, ‘사실적 정보’ 항목에 8번씩 비교적 여러번 나타나고 있다.

4. D 교과서 분석

교과서D의 의사소통기능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교과서 D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계
친 교 활 동	인사하기	⑨⑦			⑦			⑦	⑧					3/1/0/1
	소개하기	⑦⑦												2/0/0/0
	감사하기	⑨												0/0/0/1
	주의 끌기				⑧									0/1/0/0
	청찬, 축하, 감탄			⑦						⑩				1/0/0/1
	약속													0/0/0/0
	기원		⑨											0/0/1/0
	음식권유, 응답													0/0/0/0
사실적 정 보 교 환	대화의 시작, 끝맺음												⑨	0/0/1/0
	소 계													6/2/2/3
	사실적 정보			⑨				⑧	⑦					1/1/1/0
	사실 확인							⑦⑧						1/2/0/0
	사실 묘사		⑩				⑦			⑩			⑦	2/0/0/2
	습관									⑦				1/0/0/0
	경험				⑩						⑧			0/1/0/1
	계획		⑧					⑨						0/1/1/0
지 적 태 도 표 현	수정						⑦		⑨				⑩	1/0/1/1
	비교			⑨										0/0/1/0
	소 계													6/5/4/4
	동의나 반대						⑩						⑧⑨	0/1/1/1
	제외, 초대			⑦										1/0/0/0
	제안				⑧	⑧			⑩					0/2/0/1
	기억									⑧				0/1/0/0
	가능, 불가능						⑦				⑨⑩			1/0/1/1
감 정 표 현	확신하기						⑨	⑩					⑩	0/0/1/2
	의무								⑨			⑧	⑦	1/1/1/0
	허락											⑩		0/0/0/1
	지시, 금지										⑦			1/0/0/0
	의견 표현					⑧	⑧⑧⑨			⑨		⑨		0/3/3/0
	소 계													4/8/7/6
	좋아함, 싫어함		⑦⑩											1/0/0/1
	희로애락				⑨				⑧	⑨	⑦⑩	⑩	⑧	1/2/2/2
문 제 해 결	원하는 것	⑧												0/1/0/0
	동정				⑦									1/0/0/0
	소망, 의지			⑩				⑨			⑧			0/1/1/1
	불명					⑩								0/0/0/1
	소 계													3/4/3/5
	사과, 변명						⑩			⑦		⑧		1/1/0/1
	후회							⑩						0/0/0/1
	관심	⑧												0/1/0/0
문 제 해 결	소 계													1/2/0/2
	설득					⑦								1/0/0/0
	요청	⑨		⑧		⑨		⑦						1/1/1/0
	충고		⑨	⑩	⑨	⑦⑨⑩								1/0/3/2
	경고					⑦								1/0/0/0
	소 계													4/1/5/2
	원인과 결과		⑦⑧						⑩		⑨	⑦⑦		3/1/1/1
	길 안내													0/0/0/0
총 계	물건 사기								⑦					1/0/0/0
	음식주문													0/0/0/0
	되묻기													0/0/0/0
	이해점검	⑨		⑧	⑩									0/1/1/1
	전화하기 및 받기											⑨		0/0/1/0
	소 계													4/2/3/2
	총 계	3/2/2/2	2/2/2/2	2/2/2/2	2/2/2/2	3/2/2/2	3/2/2/2	3/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8/24/24/24

⑦:중1교과서, ⑧:중2교과서, ⑨:중3교과서, ⑩:고1교과서

위 D교과서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표를 살펴보면 먼저 중1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체 28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하위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6.8%에 해당하는 22개 항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53.2%에 해당하는 25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감사’, ‘주의 끌기’, ‘약속’, ‘기원’,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경험’, ‘계획’,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동의’나 ‘반대’, ‘제안’, ‘기억’, ‘확신하기’, ‘허락’, ‘의견 표현’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원하는 것’, ‘소망 · 의지’,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모두 수록되어 있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길안내’,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2교과서로 중1교과서보다 4개 적은 총 24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시키면 40.4%에 해당하는 19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 59.6%에 해당하는 28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소개’, ‘감사’, ‘칭찬 · 축하 · 감탄’, ‘약속’, ‘기원’,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 묘사’, ‘습관’,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제의 · 초대’, ‘가능 · 불가능’, ‘확신하기’, ‘허락’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표현’ 기능에서는 ‘좋아함 · 싫어함’,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충고’,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길안내’, ‘물건사기’, ‘음식주문’, ‘되묻기’,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3교과서로 앞서서 살펴본 중2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총 24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다루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0.4%에 해당하는 19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59.6%에 해당하는 28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인사’, ‘소개’, ‘감사’, ‘주의 끌기’, ‘칭찬 · 축하 ·

감탄’, ‘약속’, ‘음식 권유 · 응답’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경험’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 · 초대’, ‘제안’, ‘기억’, ‘허락’,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좋아함 · 싫어함’, ‘원하는 것’,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전체 ‘사과 · 변명’, ‘후회’,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설득’,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길 안내’, ‘물건 사기’, ‘음식주문’ 항목이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고1교과서에서도 명시적으로 총 24개의 의사소통기능 예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세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2.6%에 해당하는 20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57.6%에 해당하는 27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소개’, ‘주의 끌기’, ‘약속’, ‘기원’,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습관’, ‘계획’,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 · 초대’, ‘기억’, ‘의무’, ‘지시 · 금지’, ‘의견 표현’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원하는 것’, ‘동정’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설득’, ‘요청’,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길 안내’, ‘물건 사기’, ‘음식주문’, ‘되묻기’,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학년별로는 평균적으로 42.6%에 달하는 20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고 57.4%에 달하는 27개의 항목들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학년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 D는 4개의 학년에 걸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47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91.5%에 달하는 43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년에서 누락된 항목으로는 ‘친교활동’ 기능에서 ‘약속’, ‘음식권유 · 응답’ 항목과 ‘문제 해결’ 기능에서 ‘길안내’, ‘음식주문’ 항목이 빠져있다. 각 항목별로는 전체 학년에 걸쳐 누락된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수록되어있어 특별히 어느 한 부분의 의사소통기능만을 치우쳐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E 교과서 분석

교과서E의 의사소통기능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교과서 E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계
친 교 활 동	인사하기	⑧												0/1/0/0
	소개하기	㉗⑧												1/1/0/0
	감사하기			㉗	⑩				⑧			⑩		1/1/0/2
	주의 끌기											㉗		1/0/0/0
	청찬, 축하, 감탄				⑧	⑩		㉗	㉗⑩	⑧				2/2/0/2
	약속					⑩								1/0/0/0
	기원	⑩										⑩		0/0/0/2
	음식권유, 응답													0/0/0/0
사실적 정 보 교 환	대화의 시작, 끝맺음			⑩										0/0/0/1
	사실적 정보								⑨					0/0/1/0
	사실 확인		⑧		⑧	⑨								0/2/1/0
	사실 묘사			㉗										1/0/0/0
	습관		㉗									⑧		1/1/0/0
	경험		⑩					㉗				⑨		1/0/1/1
	계획		⑨				㉗			㉗				2/0/1/0
	수정													0/0/0/0
지 적 태 도 표 현	비교				⑧	⑩					⑩			0/1/0/2
	동이나 반대		⑩	⑧⑨				⑨				⑨		5/4/4/3
	제외, 초대								⑩					0/0/0/1
	제안	⑨	㉗	⑧			㉗⑧	㉗				⑩		3/2/1/1
	기억				㉗						⑧			1/1/0/0
	가능, 불가능		⑨	⑧							⑩			0/1/1/1
	확신하기	⑨⑩	⑧	⑨		⑧	⑧⑩	⑩				⑧⑨		0/4/3/3
	의무						㉗		⑨⑩			⑩		1/0/1/2
감 정 표 현	허락		㉗		⑩									1/0/0/1
	지시, 금지	⑨			㉗⑨			⑨						1/0/3/0
	의견 표현			㉗⑨		㉗⑨⑨		㉗		㉗⑩		㉗⑧⑨		5/1/4/1
	좋아함, 싫어함	㉗	⑧			㉗⑧								12/10/16/11
	희로애락				⑨			㉗	㉗	⑧⑧⑨⑩	⑩	㉗		2/2/0/0
	원하는 것	㉗					⑨				㉗			2/0/1/0
	동정												⑧⑨	0/1/1/0
	소망, 의지	⑧		⑩			⑨	⑧⑩		⑨	㉗⑧	⑨⑩		1/3/3/3
문 제 해 결	불평													0/0/0/0
	설득													8/8/7/5
	요청										⑨		㉗⑧	0/0/0/2
	충고	⑩	⑨	⑩					⑩	⑧⑨	⑨	⑩		0/0/1/0
	경고						⑩							0/1/3/4
	원인과 결과 말하기							⑧				⑧	㉗	0/0/0/1
	길 안내							⑧	⑨					1/2/0/0
	물건 사기				⑩				⑧				㉗	0/1/1/0
총 계	음식주문			㉗										1/1/0/1
	되묻기							⑨						1/0/0/0
	이해점검					⑩	⑨							0/0/1/0
	전화하기 및 받기				⑨		⑧		⑧					0/0/1/1
	전화하기 및 받기				⑨		⑧		⑧					0/2/1/0
	소 계													3/6/4/2
	문 제 해 결													1/1/1/3
	소 계													0/0/0/0
	총 계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6/36/36/36

㉗:중1교과서, ⑧:중2교과서, ⑨:중3교과서, ⑩:고1교과서

위 E교과서의 단원별 의사소통기능 분포표를 살펴보면 먼저 중1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체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하위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51.1%에 해당하는 24개 항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진 항목으로는 48.9%에 해당하는 23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인사’, ‘기원’,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동의나 반대’, ‘제의 · 초대’, ‘가능 · 불가능’, ‘확신하기’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는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 · 변명’,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충고’,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길안내’, ‘되묻기’,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2교과서로 중1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시키면 51.1%에 해당하는 24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빠진 항목으로 48.9%에 해당하는 23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는 ‘주의 끌기’, ‘약속’, ‘기원’, ‘음식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는 ‘사실적 정보’, ‘사실 묘사’, ‘경험’, ‘계획’, ‘수정’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제의 · 초대’, ‘의무’, ‘허락’, ‘지시 · 금지’ 항목이고, ‘감정표현’ 기능에서는 ‘원하는 것’,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 · 변명’,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는 ‘설득’,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는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항목이 빠져있다.

다음은 중3교과서로 앞서서 살펴본 중2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총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다루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6.8%에 해당하는 22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누락된 항목으로는 53.2%에 해당하는 25개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인사’, ‘소개’, ‘감사’, ‘주의 끌기’, ‘칭찬 · 축하 · 감탄’, ‘약속’, ‘기원’, ‘음식 권유 · 응답’, ‘대화의 시작 · 끝맺음’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 묘사', '습관', '수정', '비교'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제의·초대', '기억', '허락'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좋아함·싫어함',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는 '사과·변명', '관심'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설득', '경고'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원인과 결과', '물건 사기', '음식주문' 항목이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고1교과서에서도 명시적으로 총 36개의 의사소통기능 예문을 수록하고 있고,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7개 세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46.8%에 해당하는 22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누락된 항목으로는 53.2%에 해당하는 25개의 항목이 있다. 빠진 항목들을 보면, '친교활동' 기능에서 '인사', '소개', '주의 끌기', '약속', '음식권유·응답' 항목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수정' 항목이고,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기억', '지시·금지' 항목이고, '감정 표현' 기능에서 '좋아함·싫어함', '원하는 것', '동정', '불평' 항목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 기능에서 '후회' 항목이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설득', '요청' 항목이고, '문제 해결' 기능에서 '원인과 결과', '길 안내', '음식주문', '되묻기',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이 빠져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학년별로는 평균적으로 48.9%에 달하는 23.3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고 51.1%에 달하는 24개의 항목들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학년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 E는 4개의 학년에 걸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47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91.5%에 달하는 43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년에서 누락된 항목으로는 '친교활동' 기능에서 '음식권유·응답' 항목과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서 '수정' 항목 그리고 '설득과 권고' 기능에서 '설득' 항목이 빠져있다. 각 항목별로는 전체 학년에 걸쳐 '지적태도 표현'의 '의견 표현' 항목이 중1, 중3학년 교과서에서 5번씩 나오고 중2, 고1학년 교과서에서 각각 1번씩 등장하여 총 12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고 있다. 이어서 '확신하기' 항목은 10번 수록되었고, '희로애락' 항목이 9번, '소망·의지'와 '충고' 항목이 각각 8번씩 등장하고 있다. 나머지 항목들은 전체 학년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인다.

C.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과 연계성 분석

아래의 [표 13] 는 각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의 예시문들을 빠짐없이 단계별로 모두 수록하였다.

[표 13] A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항 목	하위 항목	중1	중2	중3	고1
친 교 활 동	인사		How have you been? Send my regards to your family. Say hello to your father (for me).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parents. I haven't seen you in ages.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doing?
	소개		Let me introduce myself.	I'm very pleased to meet you.	
	감사		Don't mention it.		I appreciate your help. I'm delighted to be able to help.
	주의 끌기				
	칭찬·축하·감탄	Nice of you to say so. I'm sure you'll do better next time.	Terrific!	I'm glad you like it.	You did a good job.
	약속		Can you make it at ten?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What place is convenient for you?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at seven?
	기원	I hope everything goes well.			
	음식권유·응답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사실적 정 보 교 환	대화의 시작 끝맺음	Excuse me, aren't you Ha-na?		Excuse me. Haven't we met before? Sorry, but I have to go now.	Sorry, but I have to go now.
	사실적 정보	Could you tell me how to find it? When was the first World Cup held?	What time do you usually finish school?	Could you tell me how you made it?	Could you tell me what's in it?
	사실 확인				
	사실 묘사	He is wearing a blue shirt.			
	습관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경험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Have you ever been to Geumgangsang?	My brother has told me about it.		I'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film. I'm very interested in skating.
	계획	I hope to go to the stars.		He planned to be a farmer.	I'm planning to take a math course.
	수정		That's not quite right.		
지 적 태 도 표 현	비교	It's the highest mountain in Korea.	She is your age.	The Korean flag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flag I have ever seen.	
	동의나 반대		Do you agree?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I don't agree.	I can't agree with you.
	제외·초대		That's very kind of you. Maybe next time.		
	제안	How about going to the park?	I'm afraid you can't. Shall we bring rice or clothes?	Sorry, I can't I'm going shopping with Paul.	I'd love to, but I can't.
	기억	Do you remember your first day at school?		Yes, I remember it well.	
	가능·불가능	I can't solve the problem. Neither can I.	I'm not sure if I can do that.	Will you be able to go to the concert next Sunday?	Will you be able to go to the concert next Sunday?
	확신하기		He will probably come.	I doubt if you can. Well, I don't think it'll be possible. I'm sure that he will come.	I'm confident that we will win. Yes, it's likely I don't think it's possible.
	의무	You have to be kinder to your friends. You must study hard.		I had to take over some of my mom's duties. We're supposed to meet our English teacher.	You're not supposed to eat anything in here.
표 현	허락			May I borrow your collection of poetry?	Is it OK if I join you? Would you mind if I have a day off tomorrow?
	지시·금지		You should be careful.		

지 적 태 도 표 현	의견 표현	What do you think of school? What shall I do? Did you find the book interesting? To me, it's the best in the world.	I think it's a very nice bike. I'm sure you will win the game.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I think it's the best in the world.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right now.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What do you think of this?
감 정 표 현	좋아함·싫어함	You don't like exercising, do you? What do you like doing on Sundays? What's your favorite food?	I hate tomatoes.	There is nothing I like more than playing soccer.	There is nothing I like more than Grandpa's house.
	희로애락	I can't believe this. Don't take it so hard.	It really makes me mad. I'm very unhappy about this. They'll be very happy with our help.	That's incredible! I am surprised you could do it. It really makes me mad.	I'm surprised you see it that way. Oh, that's incredible! That's incredible! It really makes me angry.
	원하는 것		I'd like to have a bike.	Would you like to go home now?	Do you want to go hiking this Sunday!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동정		It's a pity. That's too bad. We're sorry to hear that.	I know how you feel.	I know how she feels.
	소망·의지	I hope(that) she likes. It'll be nice to go there.	Do you intend to go abroa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m sure that we'll have a good time. I'm dying to see that movie.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you have to show me.
	불평	This is most unsatisfactory. I want to complain about this jacket.			
도덕적 태 도 표 현	사과·변명		I'm sorry, but it wasn't my fault.	I can't tell you how sorry I am. I'm terribly sorry, but it wasn't my fault.	
	후회				I wish I'd acted differently.
	관심	Are you interested in music? No, I'm interested in history.		He became interested in military leader-ship.	My main interest is in collecting travel advertisements. What are you interested in?
권 고 설 득 과	설득	Please, let me try.		Let's do it this way. Let me take a look at it.	
	요청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충고	I think you should start exercising.		I suggest you go and see a doctor.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Do you think I should buy it? You'd better not go there. If I were you, I wouldn't go there.	Do you think I should buy it? You'd better not go t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경고			You'd better not go there.	Never do that again.
문 제 해 결	원인과 결과	Why do you think kimchi is good? Because it keeps us healthy. I got up late, so I missed the school bus.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you said so?	Can you tell me why the animals have disappeared? Why do you like the book?	Because I was sick.
	길 안내	How do I get there from here?		It will take more than 30 minutes by bus.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nearest sports shop?
	물건 사기	I'm looking for a blouse.	Do you have these in size ten?		Can I have it wrapped?
	음식주문				Here or to go?
	되묻기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I beg your pardon?	I don't understand things.
	이해질림		Do you know how to make this flower?		Does that make sense?
	전화하기 및 받기	May I speak to Ted? Can I take a message?	Can I take a message?		May I ask who's calling?

위 A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을 분석하면 하위항목 47개중 ‘칭찬·축하·감탄’외 7개 항목이 전체 학년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중1 36개, 중2 38개, 중3 48개, 고1 48개로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중1 24개, 중2 26개, 중3 31개, 고1 34개를 나타내고 있다.

‘친교 활동’ 상위 항목에서는 연계성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고, ‘칭찬·축하·감탄’항목에서는 전체 학년에 나타나고 있다. ‘주의 끌기’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기원’ 항목은 한 번 나타나 있다.

‘사실적 정보 교환’ 상위 항목은 ‘사실 확인’ 항목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나타난다. 또한 ‘사실적 정보’항목은 전체 학년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예시문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험’ 항목도 비교적 연계성이 높다.

‘지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은 전체에 걸쳐 다양한 예시문이 제시되며, ‘제안’, ‘가능·불가능’, ‘의견 표현’ 항목에서 전 학년에 걸쳐 나타난다. ‘의견 표현’ 항목의 중1, 고1교과서에 각각 4개와 3개의 예시문이 제시된다.

‘감정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좋아함·싫어함’과 ‘희로애락’ 항목에서는 전체 학년에 걸쳐서 각각 6개와 7개의 예시문이 연계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도덕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각각 한 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어 중복과 연계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설득과 권고’ 상위 항목에서는 ‘충고’항목의 중3, 고1교과서에서 각각 5개와 3개의 예시문이 제시되었다. 또한 ‘요청’항목에서는 중3, 고1교과서에 똑같은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어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

‘문제 해결’ 상위 항목에서는 ‘원인과 결과’항목이 전 학년에 걸쳐 제시되고 있고, 6개의 예시문이 연계성을 갖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음식 주문’ 항목에서는 고1교과서에서 한차례 언급되어지고 있어서 연계성에 다소 문제가 된다.

[표 14] B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항 목	하위 항목	중1	중2	중3	고1
친 교 활 동	인사			I'm glad to see you again.	How have you been?
	소개	Nice to meet you.			
	감사		How thoughtful you are!	Thank you very much of inviting me. No, thanks. I can do it myself.	
	주의 끌기				You know what?
	칭찬·축하·감탄	Wow, it's so nice! Good for you! That will be wonderful.	Your ideas are always better than mine.	That's neat!	I guess you're a smart shopper.
	약속		When shall we met?		
	기원				
	음식권유·응답	Yes, please. No, thanks.	Help yourself, please.	Do we need any bread?	Would you care for a DNA apple?
	대화의 시작 끝맺음				
사실적 정 보 교 환	사실적 정보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How old are you? Who is this? What's your father's job? How do you go to school? What do you do after school? What's your phone number? When is your birthday? What are you doing? How's the weather today? Do you know how to use a computer?	What's your e-mail address?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What are your hobbies? What's on TV tonight? How long will it take to the hotel? How do they greet each other? Which club do you belong to? What exercise do you do?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What's the matter with them? Do you know where the airport bus leave from?
	사실 확인		Are you good at drawing cartoons? Where should I call and report an accident?		
	사실 묘사		That's news to me.	It's really a problem.	
	습관	What time do you get up?	How often do you e-mail your friend?		How often do you watch the news in English on TV?
	경험	What did you do yesterday?	Have you ever had a bird?	I used to be a scout.	Have you ever been to an art museum? I've heard the news.
	계획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수정				
	비교		Who is faster, you or Min-gi?		
지 적 태 도 표 현	동의나 반대	Sure, why not? You can say that again!	Sorry, I can't. I have to go a club meeting.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I'm afraid I can't agree with you. I don't think you should do that.	I couldn't agree more. You've got a point there.
	제외·초대	Can you come to the party?			
	제안	Let's go on a picnic. Why don't you keep a diary?	How about making a newspaper?		Why don't you try to see English movies?
	기억				Do you remember your first exhibition? That reminds me.
	가능·불가능	What can we do in summer?		Is it possible to have my dogs walked?	I can't express myself clearly in English.
	확신하기			I'm sure it will be all right.	I'm confident that we will win. It is true that all people are created equal.
	의무			You should buy things that can be recycled.	You have to keep Netiquette when you are online.
	허락			Can I say something here?	May I come over and see some of your paintings?

지 적 태 도 표 현	지시·금지	Don't throw bottles!	First, he should cool it in cold water.		
	의견 표현	How do you like this park?	What do you think of Korea? How do you like my hat?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I suppose Mr. Kim wasn't very happy. If you could have one wish, what would you wish for?	That's a bargain. Frankly speaking, it bores me stiff. I have no idea. That sounds strange to me. It's hard to say, but I think working individually is better. That's true, but the spirit of teamwork is also important. What New Year's resolutions would you like to make? I'd rather not say.
감 정 표 현	좋아함·싫어함	Do you like hamburgers or chicken? Which season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bulgogi?	What's your favorite TV show?	I'm fed up with people smoking in public places.
	희로애락		You're kidding! Don't worry, I'm sure you will win next time.	I don't believe it! I never thought I'd find it. Don't take it so hard. Wow! How amazing!	
	원하는 것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I'd like to check in. I want to report an emergency!		How much chicken do you want?
	동정				
	소망·의지		I'm dying to read "Harry Potter"	I'd rather stay at home tonight.	I've always dreamed of working for the helpless. I wish I could work for world peace.
	불평				
도덕적 태 도 표 현	사과·변명				I haven't had time.
	후회			I wish I had acted differently.	
	관심		Are you interested in Samulnori?		
권 고 설득과	설득				It's really worth seeing.
	요청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please? Lend it to me, will you?	Do you need any help? Would you please tell me about when you were young? I'd rather you didn't throw away waste. Would you mind holding the line, please. Would you please help me move my desk?	Can I ask a favor?
	충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경고				
문 제 해 결	원인과 결과	Why do you like this park?		Why is Sang-Jin being punished? Can you tell me why you said that?	
	길 안내	Where is the supermarket?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Turn left at the corner.			
	물건 사기	How much is it?	I'm looking for a used bike. How much is the blue dress? How do you like my hat?	I'd like to exchange this sweater.	
	음식주문				
	되묻기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I don't get it.	I didn't quite catch that.
	이해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		

위 B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을 분석하면 하위항목 47개중 ‘칭찬·축하·감탄’외 5개 항목이 전체 학년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중1 36개, 중2 36개, 중3 36개, 고1 36개로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중1 18개, 중2 23개, 중3 21개, 고1 22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원’,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들에서는 연계가 있는 예시문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소개’, ‘주의 끌기’, ‘약속’ 항목에는 예시문이 1회 나타나 있다.

‘사실적 정보 교환’ 상위 항목은 중1, 중2, 고1교과서에서 ‘사실적 정보’ 항목에서 각각 12개, 8개, 3개 예시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중3교과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정’ 항목에서는 전체 학년에서 예시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경험’항목에서는 전체 학년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예시문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양한 예시문이 연계성을 갖고 제시되고 있으며, ‘제안’ 항목과 ‘의견 표현’ 항목에서 비슷한 형태의 예시문이 보인다. ‘의견 표현’ 항목의 중3교과서와 고1교과서에는 비교적 많은 각각 5개와 8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감정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동정’과 ‘불평’의 두 개 항목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좋아함·싫어함’ 항목에서는 전체 학년에 걸쳐서 다양한 예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도덕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각각 한 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어 중복과 연계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설득과 권고’ 상위 항목에서는 ‘요청’ 항목의 중3교과서에서 비교적 많은 5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경고’ 항목에서는 전체 학년에 걸쳐 예시문이 누락되어 있다.

‘문제 해결’ 상위 항목에서는 ‘음식주문’, ‘이해질림’, ‘전화하기 및 받기’ 항목을 제외하고 연계성을 갖고 다양하게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표 15] C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항 목	하위 항목	중1	중2	중3	고1
친 교 활 동	인사		How are you doing?	I haven't seen you in ages.	
	소개	Glad to meet you.	Let me introduce my family to you.	I'd like you to meet a new student. It's a pleasure to meet you.	
	감사			I appreciate your help. I'm pleased to be able to help.	I appreciate your tip. Don't mention it.
	주의 끌기	You know what?			
	칭찬·축하·감탄	You did a good job!		It's nice of you to say so. I bet you'll make a great cartoonist.	
	약속	What time shall we make it?		What place is convenient for you?	Can you make it at six? I'm afraid not.
	기원		I hope everything goes well next time.		I wish you will.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음식권유-응답	Do you want some more bulgogi? No, thanks. I'm full.			
사 실 적 정 보 교 환	대화 의 시작 끝맺음				
	사실적 정보	Where are you from? Who's this man? How old is your sister? She's in the fourth grade. What time is it?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Could you tell me how to use this robot dog?	How come you can solve it so easily?	
	사실 확인			Where do you think stamps are available?	
	사실 묘사	There are many old places in Seoul. She is wearing a blue shirt.			
	습관	I usually go to my swimming lesson after school.			
	경험	I had a great time.	Have you ever heard about key pals? I've never tasted such a delicious rice cake.	Have you ever read this famous book on the wonders of nature?	It's the most satisfying work I've ever done.
	계획	What will you do next vacation?			
	수정		That's not quite right.	I'm afraid you are wrong. Sorry, you're mistaken.	Let me put it this way.
지 적 태 도 표 현	비교				
	동의나 반대	Why not? That's a good point. Don't you think so?	That's a very good plan. You can say that again.	That's just what I was saying.	I'm afraid I can't accept that.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I can't agree with him.
	제외·조대		That's very kind of you.		
	제안	How about taking some pictures?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I'd love to, but I have to go swimming with my parents.		Shall we spend the weekend in the mountain.
	기억			Do you remember the first day of middle school.	Do you remember why? No, I don't. I forgot.
표 현	가능·불가능			You might be able to master English in a year. I don't think it's possible.	I'm not sure if I can do that. Will you be able to go jogging with me tomorrow? Only love might be able to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지 적 태 도 표 현	확신하기		Do you think our team will win the next game, too? I'm sure our team will take first place.	The hamburger must have come from the word "ham".	I don't think that's possible. Many people doubt if disabled people have their own special talents.
	의무	We must obey the traffic laws.		You're not supposed to spend too much time playing games.	
	허락	May I have some water?		Is it okay if I play computer games?	Do you mind if I sit here?
	지시·금지	You shouldn't do that.			You shouldn't do that.
	의견 표현	What do you think of your new friend? I think you'll be a great musician.	To me, you'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Do you find your new school different? I found there are many different things.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at. I just can't help it.	I really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How do you like Korean food? Did you find the book interesting?
감 정 표 현	좋아함·싫어함	What's your favorite music?	What do you like doing on Saturday? I enjoy watching scientific movies.		There is nothing I like more than computers.
	희로애락	That's really surprising. I'm very unhappy about this.	I'm not happy with my appearance. Take it easy. I'm afraid he broke his leg. Let's look on the bright side. I'm glad you like it.	It really makes me sad. Don't take it so hard. I'm surprised that you're still working out. I can't believe it.	Don't take it so hard. That's incredible. I'm really surprised that animals know how to help each other.
	원하는 것	I want to buy a present for my brother.	I'd like to take a walk.		
	동정			I know how it feels.	I'm very sorry to hear that.
	소망·의지	I can't wait. I want to be a musician.	I wish there were no pollution in the world. I hope to visit New York someday. I'm sure she'll like it.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New Zealand. I hope I'll be able to visit New Zealand.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afting for a long time. It'd be nice to fly in the sky. I'm certain that computers will help you a lot.
	불평		That's not fair.	What a shame! He should know better.	
도덕적 태 도 표 현	사과·변명			I can't tell you how sorry I am.	I owe you an apology. It really doesn't matter at all.
	후회				I wish I'd been more careful.
	관심		Are you interested in science?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math.		What are you interested in? My main interest is producing animation.
선택과 권 고	선택			Please, let me try. I think I know how to solve it.	Please let me try. I think I know how it works.
	요청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Would you do me a favor? Wash the dishes before I come home, will you?	
	충고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If I were you, I'd take a shower. You'd better not drink soda pop. My doctor recommended I exercise regularly.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I think you should try to take it easy. You'd better not hurry.
	경고		Watch your step!		
문 제	원인과 결과				What do you mean? It doesn't make sense, does it?
해 결	길 안내	How do I get there? Go straight ahead.	Excuse me.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Daehan Middle School?	Could you tell me where the National Museum is? It's three blocks from her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물건 사기	I'm looking for a backpack.		Do you carry scissors?	

문 제 해 결	음식주문			May I take your order? I'd like to have a hamburger, please.	May I take your order? I'd like to have kimchi jjigae.
	되묻기		Could you say your last name again, please?		I beg your pardon?
	이해점검		Did you get it?		Do you know what I mean? What do you mean? It doesn't make sense. does it?
	전화하기 및 받기	Can I talk to Inho? Who's calling, please?	Sorry, she's not. Can I take a message?		

위 C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을 분석하면 하위항목 47개중 ‘경험’의 5개 항목이 전체 학년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중1 37개, 중2 35개, 중3 45개, 고1 43개로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중1 24개, 중2 24개, 중3 27개, 고1 27개를 나타내고 있다.

‘친교 활동’ 상위 항목에서는 연계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된다. ‘대화의 시작·끝맺음’ 항목에서는 예시문이 누락되어 있다.

‘사실적 정보 교환’ 상위 항목은 ‘비교’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에 걸쳐 예시문들이 나타나며, ‘사실적 정보’ 항목은 중1교과서에 6개 나온다. ‘경험’ 항목은 전 학년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예시문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적태도 표현’ 상위 항목은 ‘동의나 반대’ ‘의견 표현’에서 전 학년에 걸쳐 나타나고, 각각 9개와 10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감정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희로애락’과 ‘소망·의지’ 항목에서 전 학년에 걸쳐서 각각 13개와 10개의 예시문이 연계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도덕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고1교과서에만 하위 항목 전체가 제시되고 있다. 연계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설득과 권고’ 상위 항목은 ‘충고’ 항목에서 8개의 예시문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고’ 항목은 중2교과서에 1개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 해결’ 상위 항목에서는 ‘길안내’ 항목이 전 학년에 걸쳐 연계성을 갖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표 16] D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항 목	하위 항목	중1	중2	중3	고1
친 교 활 동	인사	I'm happy to meet you, too. What's wrong? Mike says hello to you.	How was your weekend?		How have you been?
	소개	My name is Kim Min-su. Min-su, this is Cathy.			
	감사				Don't mention it.
	주의 끌기		You know what?		
	칭찬·축하·감탄	Don't worry.			That was very sweet of you.
	약속				
	기원			Keep your fingers crossed.	
	음식권유·응답				
사실적 정 보 교 환	대화 의 시작 끝맺음			Excuse me, Are you William Forester, the famous writer?	
	사실적 정보	How many centimeters is that?	Cats are the most popular pet in the States.	What else can you tell me about him?	
	사실 확인	You need a pen-pal, don't you.	Don't you know? It's an Iguana.		
	사실 묘사	There are five mosquitos on table. I was carrying a bucket of dirty water.			A good mystery makes me feel like a detective. I was helping my mom wash the dishes.
	습관	You are always late!			
	경험		Have you ever been to Singapore?		Have you heard any good jokes lately?
	계획		I'm planning a garage sale.	Do you intend to travel?	
	수정	That's wrong.		I'm afraid you're wrong.	Not exactly.
지 적 태 도 표 현	비교			No one was bigger and stronger than him.	
	동의나 반대		I couldn't agree more.	That's a good point.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제외·초대	Why don't you come?			
	제안		Why don't we throw a surprise party for him? I'd like to, but I have to stay home.		Shall I bring them to school tomorrow?
	기억		I still clearly remember my first day at school in Korea.		
	가능·불가능	Can you answer this?		Maybe I'll even get to shake their hands.	You can do anything if you put your mind to it.
	확신하기			I'm sure I would survive.	You must have seen so many new things. I bet your parents will disagree with that.
	의무	I had to wash the fire truck.	What are you supposed to do?	I need to pull them all up.	
표 현	허락				Would you mind if I brought my friend?
	지시 · 금지	Write down three numbers in a row.			
	의견 표현		Do you have any ideas? I'm afraid it won't stop. It may stop by tomorrow.	What if there were a natural disaster here in Korea? Without them, the world would be a very different place. Why do you think he's so amazing?	

감정 표현	좋아함 · 싫어함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kind of book?
	희로애락	How amazing!	It's amazing! That's incredible!	I'm scared to go talk to her. It's terrible that he was murdered, isn't it?	Isn't it amazing that he overcame so many things? We're very pleased with it.
	원하는 것		What would you like to be?		
	동정	That sounds bad.			
	소망 · 의지		I hope to visit that country someday.	I wish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I'm dying to know if it really works.
	불평				Where am I supposed to get all this information?
도덕적 태도	사과·변명	I try, but it's very hard.	It's all my fault.		I can't tell you how sorry I am.
표현	후회				I wish I'd seen them.
	관심		What are you interested in?		
권고	설득	Let's cross the street here.			
	요청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tell me one, will you?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Can you give me a hand?	
	충고	You should be careful.		If I were you, I would exercise hard. You'd better calm down. Do you think I should buy the CD?	You'd better go see a nurse and lie down. You just need to keep your goal in mind.
	경고	Watch out!			
문제 해결	원인과 결과	I love spring, because there are so many flowers. Why not? (Because) TV is bad.	What is the garage sale for?	That's why I'm telling you.	What do you need them for?
	길 안내				
	물건 사기	I'd like these black shoes. Try these on.			
	음식주문				
	되묻기				
	이해점검		Do you get it?	Do you know what it means?	Are you following me?
	전화하기 및 받기			May I please speak to Min-su?	

위 D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을 분석하면 하위항목 47개중 ‘희로애락’과 ‘원인과 결과’ 2개 항목에서 전 학년에 걸쳐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중1 28개, 중2 24개, 중3 24개, 고1 24개로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중1 22개, 중2 19개, 중3 18개, 고1 20개를 나타내고 있다.

‘친교 활동’ 상위 항목에서는 ‘약속’과 ‘음식권유 응답’ 항목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고, ‘인사’ 항목에서는 연계성이 높은 예시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적 정보 교환’ 상위 항목은 하위 항목 전체에 연계성이 높은 다양한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으며, ‘습관’과 ‘비교’ 항목은 중1교과서에 공통으로 1개씩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지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은 전체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다양한 예시문이 제시되며, ‘제의·초대’, ‘기억’, ‘허락’, ‘지시·금지’ 항목에서 전 학년에 1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의견 표현’ 항목의 중2, 중3교과서에 각각 3개의 예시문들이 나타나는데 상위 학년으로 이동하면서 예시문의 문장의 길이와 문법구조에서 점차 나선형적 연계성이 엿보인다.

‘감정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희로애락’ 항목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서 7개의 예시문이 문장의 길이와 문법구조에서 점차 나선형적 연계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하는 것’, ‘동정’, ‘불평’ 하위 항목에서 1개씩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도덕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하위 항목 전체에 걸쳐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으며, ‘후회’와 ‘관심’ 하위 항목에서는 각각 1개씩 예시문이 나타난다.

‘설득과 권고’ 상위 항목에서는 ‘충고’ 항목에서 6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설득’과 ‘경과’ 하위 항목에서는 1개씩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어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

‘문제 해결’ 상위 항목에서는 ‘원인과 결과’ 항목이 전 학년에 걸쳐 6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고, 상위 학년으로 이동하면서 예시문의 문장의 길이와 문법구조에서 점차 나선형적 연계성이 나타난다. ‘길안내’, ‘음식 주문’, ‘되묻기’ 항목에서는 예시문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연계성에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표 17] E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

항 목	하위 항목	중1	중2	중3	고1
친 교 활 동	인사		How are you doing?		
	소개	I'm glad to meet you.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감사	No, thanks.	Thank you for coming.		You were always so thoughtful. I appreciate your kindness.
	주의 끌기	You know what?			
	칭찬 · 축하 · 감탄	What a small world it is! Don't worry.	You did very well. That's nice of you to say so.		Nice of you to say so. You can do better next time.
	약속	Shall we meet at six?			
	기원				I hope everything goes well. I keep my fingers crossed!
	음식권유·응답				
사 실 적 정 보 교 환	대화의 시작 · 끝맺음				Excuse me, but haven't we met before?
	사실적 정보			They say that it's a very interesting museum.	
	사실 확인		Mike likes swimming, doesn't he? Are you a nurse or a doctor?	Don't you know that he won the game?	
	사실 묘사	There are lots of children in the park.			
	습관	I get up at seven.	He always brushed his teeth after meals.		
	경험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He told me that he has worked for the sick.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sight.
	계획	I'll visit my hometown this summer. I'm going to take swimming lessons.		I'm thinking of buying a bike.	
	수정				
지 적 태 도 표 현	비교		John is the tallest student.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t's no larger than a human hair.
	동의나 반대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I'm afraid you're wrong. I don't agree with you. That's a good point.	I couldn't agree more.
	제의·조대				That's fine with me.
	제안	Why don't you go with me? How about going with me? Why not?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I'm afraid I can't.	Wouldn't it be better to invite Love?	Shall we dance together?
	기억	I forgot about the letter.	Yes, I remember it well.		
	가능·불가능		I can, if you can.	I'll be able to leave the ground.	I might be able to go with you.
	확신하기		I'm sure we'll have a good time. Are you sure that you'll pass the exam? I am certain that it will be very hot. He'll probably come.	You must be hungry. I don't think it's possible. I'm not quite sure what to do.	I have no doubt that the story is true. There might be too many cars. I will certainly treasure your gift.
	의무	I have to help my mother now.		I'll have to help my mom prepare for the party.	We are to conduct a life boat drill regularly.
	허락	Can I borrow your book?			Do you mind if I sit here?
	지시·금지	You shouldn't swim here.		Go tell them I'm home. You are not allowed in the hospital. No more playing computer game!	

지 적 태 도 표 현	의견 표현	I think it's bad for your cold. To me, tennis is the best.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Isn't skydiving too dangerous? Did you find the book interesting?	I have no idea where she lives.	I'm afraid you're wrong. It would be no fun without sports. It is water that the basis of life. Why do you think people read books?	What do you think is important?
감 정 표 현	좋아함 · 싫어함	Do you like swimming? What is your favorite sport?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You don't like bananas, do you?		
	희로애락	I'm surprised! She is really excited about the game. I can't believe this.	I'm surprised to hear the news. I'm happy to see the park clean.	You'll never know how glad I am. I'm surprised that he won the race.	That's incredible!
	원하는 것	What do you want to do? I'd like to visit Gyeongju soon.		I'm curious to know what it is like.	
	동정		It's a pity that he lost his job.	I know how he feels.	
	소망 · 의지	I hope you come and see it.	I'm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tonight.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I'm dying to see that movie.	I feel as if I were in the Silla Dynasty. I'm determined to practice it every day. We are expected to be on time.	Do you intend to go abroad? Hopefully, you can solve this problem. I hope to visit Hawaii next summer.
	불평				
도덕적	사과·변명				I can't tell you how sorry I am. Sorry that I couldn't get back to you sooner.
태 도	후회			I wish I hadn't done that.	
표 현	관심	Are you interested in music?	What are you interested in?		He has no interest in classical music.
선택과 권 고	선택				
	요청	Can you open the window, please?	Get the mail for me, will you?	Would you please help me do the dishes?	
	충고		I think you should get up early.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Don't let anything get you down.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I think you should go home early. I suggest you go see a doctor.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If I were you, I would tell the truth.
	경고				Never forget that we have only one earth.
문 제 해 결	원인과 결과	Because I was sick.	I got up late, so I missed the school bus. I was absent because I was sick.		
	길 안내		How do I get there from here?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물건 사기	I'm looking for some socks.	Do you have this sweater in size six?		That's on sale.
	음식주문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되묻기			You mean you don't like hamburgers.	
	이해점검			Do you know what I mean?	Are you following me?
	전화하기 및 받기		May I speak to Tom? Can I leave a message?	Who's calling, please?	

위 E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을 분석하면 하위항목 47개중 ‘제안’의 3개 항목이 전 학년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중1 36개, 중2 36개, 중3 36개, 고1 36개로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중1 24개, 중2 24개, 중3 22개, 고1 22개를 나타내고 있다.

‘친교 활동’ 상위 항목에서는 ‘감사’와 ‘칭찬·축하·감탄’ 항목에서는 다양한 예시문이 전체 학년에 나타나고 있다. ‘음식권유·응답’ 항목은 누락되어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3교과서에는 ‘친교활동’ 하위 항목 전체가 누락되어 있다.

‘사실적 정보 교환’ 상위 항목은 ‘수정’ 항목을 제외하고 다양한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위 학년으로 이동하면서 예시문의 문장의 길이와 문법 구조에서 나선형적 연계성이 나타난다.

‘지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은 전체에 걸쳐 다양한 예시문이 제시되며, ‘제안’ ‘의견 표현’ 항목에서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한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고, ‘제의·초대’ 항목에서는 고1교과서에만 1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확신하기’ 항목은 중1교과서에 누락되어 있으나 그 외의 교과서에서 10개의 예시문이 나타난다.

‘감정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희로애락’과 ‘소망·의지’ 항목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서 각각 9개와 10개의 예시문이 연계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도덕적 태도 표현’ 상위 항목에서는 ‘사과·변명’ ‘후회’ 항목에서 각각 10개의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어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

‘설득과 권고’ 상위 항목에서는 ‘설득’ 항목에 예시문이 누락되어 있고, ‘충고’ 항목에는 8개의 다양한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 해결’ 상위 항목에서는 ‘음식주문’과 ‘되묻기’ 항목에 1개 예시문이 제시되고 있고, 하위 항목 전체에 걸쳐 예시문이 나타난다.

V. 의사소통기능의 효율적 지도방안

A.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인본주의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의 정의적 변인(affective variables)을 고려한 교수법인 전신 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과 침묵식 교수법(Silent Way) 그리고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es) 등에 나타난 교수법의 특징들이 중요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기능이 표현 기능에 선행하고, 둘째 표현 기능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이 되기까지 유창성을 강조하여 대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과오는 수정하지 않는다. 셋째, 교수요목은 의사소통 기능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장치(affective filter)의 벽을 낮추어 정의적으로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언어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를 주장하는 Krashen(1985)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comprehensible language input)만이 언어 습득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해가 되지 못하는 자료는 잡음(noise)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목표어를 사용하되 학습자의 현재의 언어 능력보다 조금 높은(i+1) 수준의 언어 구조로 전달되는 의미가 이해될 수 있도록 언어 외적인 상황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화의 소재도 항상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Krashen의 가설에서는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도 말하기나 쓰기의 기능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읽기를 통한 이해의 증가는 바로 언어 습득 즉, 듣기와 말하기 나아가 쓰기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B.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교수기법

언어학습에서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면을 습득 시킬 수

있고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동기 유발을 해주며, 또한 교사와 학생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처럼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Willis(1995: 36 in 김기영)의 지적과 같이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실제 사용함으로써 더욱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the main aim of learning a language is to learn to communicate in that language. Language is much better learnt through real use than through pattern drills and exercises.

따라서 교사들은 실제 교실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Taylor(1983)도 언어학습 지도의 방향에 대해 목표언어가 ‘studying’ 위주로 보다는 ‘using’ 위주로 지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목표 언어로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실에서 학생들이 목표언어로 실제적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같은 과업지향적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면, 그러한 학생들은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도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영, 1995: 37).

... the current literature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language learners with more opportunities to interact directly with the target language - to acquire it by using it rather than to learn it by studying it. It has been suggested that when language classrooms focus on task-oriented activities which give students experience in functioning in extended, realistic discourse in the target language, those students are able to learn not only appropriate language use, but real communicative processes as well. (Taylor, 1983: 70)

이처럼 교실수업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영어 사용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지식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학습자에게 의사소통활동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해와 의미 있는 연습활동이 충분히 된 다음에 자발적인 의사소통활동이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C.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들

의사소통기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학습 활동 중에서 ‘상용문 및 대화문 연습’, ‘문장 만들기 게임’, ‘Mirrors 게임’, ‘상호 의사 교환 활동’, ‘문제 풀이 활동’, ‘역할극’, ‘정보차이 활동’, ‘연극’, ‘이야기하기’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상용문 및 대화문 연습 (*social formulas and dialogues*)

여기에서는 목표어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인사말(greetings), 헤어질 때 쓰는 말(partings), 변명(excuses), 칭찬(compliments), 불평(complaints), 소개말(introduction), 감정의 숨김(hiding feeling) 등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다. 교사는 이러한 표현들이 학생들에게 습득될 수 있도록 많은 상황을 제시해 주고, 더불어 사회적 관용표현들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문형연습은 기계적인 연습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dialogues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Dobson(1975: 55-58)은 dialogues가 화자와 청자간의 대화를 전달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언어 사용의 기교, 담화기능, 문법, 문화적 통찰력 등을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적절히 잘 구성된 dialogue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1) pause words, rejoinders, and interjections
- (2) pronunciation and grammar

- (3) vocabulary
- (4) memorization
- (5) cultural insights
- (6) applicability
- (7) brevity
- (8) balance
- (9) final line
- (10) naturalness
- (11) relevance

다음은 Paulston & Bruder(1976: 61)가 제시한 사회적 상용문과 대화의 예이다.

《Excuse and Apologies》

1) Phrases

Excuse me, please.

Pardon me. Of course.

I'm very sorry. Certainly.

I'm sorry.

I beg your pardon.

Excuse me for being late.

I'm sorry I'm late.

Excuse me for a moment, please. That's quite all right.

Think nothing of it.

2) Dialogue

A: Miss Brown?

B: Yes?

A: Please excuse me for losing my temper in class yesterday.

B: That's quite all right. Was something troubling you?

A: Yes. I had just gotten a letter from a friend of mine and I guess I was more upset than I thought.

2. 문장 만들기 게임(sentence game)

게임이란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다. 모든 게임은 철저한 사전 준비, 학생의 수준 고려, 참여자의 격려 등 교사의 태도에 따라 학생들이 흥미 및 동기 유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장 만들기 게임(sentence game)은 여러 개의 카드를 주부(主部)와 술부(述部)로 나누어 놓는다. 주부에 해당하는 카드는 그 카드대로 그리고 술부는 술부 대로 섞어 놓은 다음 참여자로 하여금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이고 그 문장들을 읽도록 한다. 또 하나는 하나의 문장을 삼등분해서 주부,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로 카드를 만든다. 이것들을 섞어 놓은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누가 빨리 그리고 정확히 문장을 만드는 가를 본다. 이 두가지방법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 언어의 4가지 기능, 즉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바람직한 게임이다. 또한 이것은 학년에 무관하게 모든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Mirrors 게임

Mirrors 게임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하는 게임으로 한 명이 보통 사람이 되어 행동하거나 말하면 다른 사람은 거울이 되어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학생이 행위자가 되어 이를 닦거나, 공부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동작을 하면, B라는 학생은 거울상(Mirror image)이 되어 행동한다. 또한 A라는 학생이 왼팔을 펴면 B라는 학생은 오른팔을 편다. 이러한 활동을 한 후에 서로 역할을 바꾸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게임을 약간 변형하여 어떤 말로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학생이 간단한 구를 말하면 B학생은 그대로 따라한다. A학생이 완전한 문장을 말하면 B학생은 정확한 억양에 주의하면서 그대로 말을 따라서 한다.

4. 상호 의사교환 활동(*interpersonal exchange*)

학생들은 짝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나누어져 서로의 취미, 가족 등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는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짝지어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문제지에 실린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이상의 질문지를 완성하게 되면 교사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feedback을 제공한다.

“Did anyone have a really strange favorite food?”

“Did anybody hear anything interesting?”

이 활동은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관심사나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에 도움을 준다.

5. 문제 풀이 활동(*problem solving activities*)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고 그것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교환을 허락함으로써 어떤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게 한다. 특히 교사는 제시된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 간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릇된 고정 관념이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문화적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group working을 이행하도록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도와주는 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의 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므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 아닌 학습자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습 동기가 중시 되는 전인적 접근 방식(whole person approach)을 통 할 때 충분한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져 좋은 학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역할극(role-play)

여기에서는 실제생활과 관련된 과제들을 교실안의 가상적 상황 속으로 끌어 들여 그 상황 속의 행동에 따른 표현들을 즉흥적으로 산출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의 언어수준을 고려하여 거기에 알맞은 역할과 표현을 선택함이 중요하며, 또한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른 사전 지식을 요구 함이 뒤따른 때 보다 더 효율적인 활동이 기대 된다. 대개의 경우 역할극은 상황(situation)설명, 역할(roles)분담 및 표현(expressions)제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데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role-taking과 role-making이 있는 데, 전자는 문형을 암기하거나 대화를 암기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을 뜻하고, 후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모방이나 조작에 의해서 표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을 뜻한다. 전자는 형식을 강조하고 후자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각각 midium-oriented communication, message-oriented communication 이라 한다.

역할극이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려면 교사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정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자료가 학습자에게 흥미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역할극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효과면 에서 제한되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즉, 몇 사람만이 역할극을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은 구경만 하게 됨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극적일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question-and-answer activities와 audience participation strategies와 같은 활동이 있다. 이 방법들은 역할 활동이 끝나면 청중에게 그 장면을 다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관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7. 정보 차이 활동(*information gap*)

Littlewood(1981: 22-23)는 정보 공백을 메우는 활동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교사의 제한된 협조를 통한 정보 공유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협조가 감소된 정보 공유 활동이다. 연습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의 통제는 점차로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각각에 속하는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한된 협조를 통한 정보 공유 활동

(1) 같은 그림 찾기 (identifying pictures)

A, B 두 사람은 모두 그림을 가지고 있다. A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내용은 B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모두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B는 A가 가지고 있는 5내지 6장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뽑아 가진다. A는 B에게 질문을 하여 A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의 어느 것과 같은 그림을 B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맞히도록 한다.

A : How many chairs are there?

B : Just one.

A : Is there is a radio on the desk?

B : Yes, There is a radio on the desk?

A : What color is the curtain?

이런 활동에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어휘는 그림의 주제에 의해 결정되며 선생님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게 될 구문, 즉 'What color?' 'How many' 등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2) 같은 짝 찾기 (discovering identical pairs)

위의 활동과 비슷한 활동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비슷한 그림을 한 장씩

나누어주고 한 학생에게 그 중의 하나와 같은 그림을 준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을 가진 사람을 질문을 함으로써 알아낸다.

(3) 순서나 장소 찾기 (discovering sequences or locations)

A는 도시의 지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나 집들을 그린다. B도 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A가 그린 것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 B는 A에게 질문을 하여 A가 그린 위치와 똑같은 곳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 장소 대신 순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4) 잃어버린 정보 찾기(discovering missing information)

A와 B는 각각 정보가 적혀 있는 도표를 지닌다. 그러나 그 도표에는 몇 가지 정보가 생략되어 있다. A는 B에게 물어서 찾아내고 B도 A에게 질문하여 정보를 찾아낸다.

(5) 비밀 찾기(discovering secrets)

한 학생이 한 개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적절한 질문을 하여 그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다. 정보에 관한 직접 질문을 막기 위하여 질문 형태를 Yes-No question으로 제한 한다. 정보를 빨리 알아내기 위하여 질문자는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간제한을 두거나 질문의 수를 제한 할 수가 있다. 비밀 내용은 유명인사, 가보고 싶은 나라 등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 교사는 연습되는 언어 구문이나 기능을 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비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스무 고개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제시된 물건에 대하여 학생들이 Yes-No 질문으로 20개의 질문을 하는 동안에 제시된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이다.

2) 협조가 감소된 정보 공유 활동

교사의 통제가 다소 감소한 상황 속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으로 의미와

기능을 중시하여 상호 연습하게 한다. 학생은 묘사하고 제안하고 명료화를 요구하고, 서로 돕는 상황의 실질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1) 동일 문형 만들기(communicating patterns and pictures)

A는 patten으로 정리한 모양을 지니고 B는 A와 동일하지만 patten으로 정리되지 않은 모양을 지닌다. B는 A와 동일한 patten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의사교환을 한다. patten 대신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모델 만들기(communication models)

위와 비슷한 활동으로 A는 하나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B는 A의 지시에 따라 A와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B는 A가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없으나 A는 B가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하여 B가 성공적으로 모델을 완성하도록 즉각적인 feedback을 해준다.

(3) 차이점 찾아내기(discovering differences)

A와 B 두 학생은 몇 가지 사항이 약간 다른 그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과 설명을 통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이것의 변형으로 여러 개의 그림을 한 그룹의 모두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은 그림의 차이점을 찾게 한다.

(4) 방향 따라가기(following direction)

A와 B 두 사람은 동일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A만 건물이나 보석의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A는 B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시해 준다.

위에서 제시된 활동을 실행할 경우에 학생들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의사소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실수를 지나치게 간섭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연극(drama)

Via(1975: 159)는 “연극이 곧 의사소통이다”라는 논제 아래 연극 과 언어 교육과의 관계를 “좋은 극에서의 대화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우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이 되고 연극을 통한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의 산 경험이며, 연극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영어를 풀어 놓는 역할을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극을 통하여 학교 영어와 생활 영어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그 내용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는 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각본은 교사가 미리 검토하고, 무대장치로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교실의 소품을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배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을 준비 할 수도 있다.

초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교사가 만든 것을 사용하고, 단계가 올라 갈수록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표현을 별도로 연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몸짓이나 표정에 있어서도 격식을 차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구별하여 연습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배경 설명을 해주고 희곡을 읽게 하는데 새 단어를 설명 할 때는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발음과 단어를 숙지 한 후, 구문을 익힌다. 연극을 다 이해한 다음에는 대사를 암기하여 실연에 들어간다. 연극이 끝난 후에 이해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토의를 하게 할 수도 있다.

9.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하는 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주제나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을 영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방법이 상급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초기에는 어떤 주제(topic)에 대해 간단히 말하도록 하고 상급반에서는 연설을 하는 정도로 내용도 풍부하고 시간이 걸려 준비한

것도 발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관련되는 주제를 선정한다면 상당히 많은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주제지만 학년에 따라 내용과 영어 표현 길어도 달라질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문형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이야기를 하는 형태는 미리 원고를 준비하거나, 간단히 요점을 적거나,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원고를 준비하고 그 것을 암기하여 이야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원고는 반드시 학생자신이 쓰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을 지도 할 때의 유의점으로는 첫째로 정확한 발음과 리듬, 음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부자연스러움을 없애고 명확한 목소리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셋째로는 좋은 내용이나, 좋았던 점을 칭찬하여 다른 학생에게도 연습시킨다. 넷째로는 문법상의 오류나 틀린 발음은 발표 중에 고치지 않도록 하여 발표의욕이 감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섯째는 이야기하는 태도나 표정.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직접 모범을 보여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듣게 한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이야기를 지도하면 학생들의 발표의욕을 높일 수 있고 교실에서 배운 것을 응용하는 능력도 생기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도 높아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학습 활동들이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Littlewood(1981: 20)의 말처럼 단계적 영역활동에 따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습하여 처음 활동의 영역에서 학습자가 익힌 지식들을 실제상황에서 적절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활동들은 학습자의 나이, 수준, 및 장소에 따라 변화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단계적 절차를 밟아 연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기능 신장에 불리한 점이 많다.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대부분이 EFL 환경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영어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학생간의 영어에 대한 지식의 차이도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입시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교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교사 위주의 수업이 주가 되고 있어서,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7-a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10-b 단계)인 국민공통 기본 교육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하고 연계성이 있는 교과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중학교 1학년(7-a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10-b 단계)까지 5종 교과서의 매 단원 첫 장의 명시적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47개의 의사소통기능과 각 항목별로 다양한 예시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 학년별로 다양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학년 간 연계성을 위하여 학년별로 각 항목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일 항목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시문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년별로 의사소통기능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종 교과서 각 학년별 의사소통기능 제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 7개중 각 학년마다 의사소통기능간의 제시 비율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단계별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의사소통기능으로는 ‘지적 태

도 표현’, ‘사실적 정보 교환’, ‘감정표현’이며 가장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도덕적 태도 표현’, ‘설득과 권고’이다. 또한 각 단계마다 특별히 강조하여 다룬 의사소통기능이 있지만 단계별 전 과정으로 볼 때 학년마다 다른 의사소통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단계별로 나타난 7개 상위범주 의사소통기능 비율이 7-a, b 단계에서는 ‘사실적 정보교환’, ‘지적 태도 표현’의 제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에, 8-a, b 단계에서는 ‘지적 태도 표현’과 ‘감정 표현’이 높게 나타나고 ‘친교활동’의 2항목의 제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9-a, b 단계에서는 ‘지적태도 표현’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사실적 정보 교환’의 4개 항목의 제시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a, b 단계에서는 ‘지적 태도 표현’이 역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도덕적 태도 표현’을 제외하고 5개 항목 모두가 비슷한 제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5종 교과서 단계별 의사소통기능 분포 분석의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기능의 분포도가 교과서별 전 학년에 걸쳐서 47개 항목 중 85%~95%에 해당하는 40~45개의 다양한 항목을 다루고 있지만 각 단계별로는 38%~72%에 해당하는 18~34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가 빠진 항목을 제외하고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항목을 다루기는 하지만 각 항목들이 학년별로 반복 제시되는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단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교과서 전체 단계별로는 평균 90%내외에 항목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각 학년별로 평균 50%정도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마다 의사소통기능의 제시비율 차가 크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교과서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과 연계성 분석을 통해서 보면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기능의 하위항목 47개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누락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A교과서에서는 ‘친교활동’ 항목의 ‘주의 끌기’, ‘사실적 정보 교환’의 ‘사실 확인’이 누락되어 있고, B교과서에서는 ‘친교활동’ 항목의 ‘기원’과 ‘대화의 시작 끝맺음’이 ‘사실적 정보교환’ 항목의 ‘수정’이 ‘감정 표현’ 항목의 ‘동정’과 ‘불평’이 ‘설득과 권고’ 항목의 ‘경고’가 ‘문

제해결’ 항목의 ‘음식주문’, ‘이해점점’, ‘전화하기 및 받기’가 누락되어 있고, C 교과서에서는 ‘친교활동’ 항목의 ‘대화의 시작 끝맺음’이 ‘사실적 정보교환’ 항목의 ‘비교’가 누락되어 있고, D교과서에서는 ‘친교활동’ 항목의 ‘약속’, ‘음식 권유 응답’이 ‘문제해결’ 항목의 ‘길안내’, ‘음식주문’, ‘되묻기’가 누락되어 있고, E교과서에서는 ‘친교활동’ 항목의 ‘음식권유 응답’이 ‘사실적 정보교환’ 항목의 ‘수정’이 ‘감정 표현’ 항목의 ‘불평’이 ‘설득과 권고’ 항목의 ‘설득’이 누락되어있다. 이러한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교과서의 각 과마다 보통 2~4개 정도의 명시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한 4개 정도의 의사소통기능을 소개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학년에 12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 최소한 46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보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언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소재를 고려하여 의사소통기능 항목을 제시해야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위해 교실환경과 학습내용도 흥미와 수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지 영어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만 할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극’, ‘드라마’, ‘정보차이 활동’, ‘연극’, ‘이야기하기’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내고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 외국어(영어)』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1) - 외국어(영어)』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I) 【별책 14】』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배두본. (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 이론과 개발』,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미. (1999). “제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내용구성 방안.” 『덕성여자 대학교 제8호 교육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기영. (1995).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영어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천창익. (1996).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교수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재선. (1997). “중학교 영어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습득 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은주. (1998).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원. (1998).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중학교 수업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남규. (2003).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 교과서 분석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연. (2003). “중2학년 영어 교과서 분석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 영. (2003).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소집단 활동의 활용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애. (2005).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미. (2006).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교과서 의사소통기능 분석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lwright, R. (1979). Language Learning through Communication Practice.
In C. J. Brumfit and K. Johnson(Eds.),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Y: Addison Wesley Longman, Inc
-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Vol. 1, pp. 1-47.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 A.: W.H. Freeman and Company
- Dobson, J. (1975). *Dialogue: Why, When, and, How to Teach Them*, pp.55-58, Seoul: Tower Press Reprint.
- Finocchiaro, M. (1979). *The Functional-Notional syllables*. New York Regents.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T. Brumfit & K. Johnson(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U.K.: Penguin Books.
- Johnson, K. (1982).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and Methodology*,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mon Press.
- Krashen, S, D. (1985). *The Input Hypothesis* London: Longman.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ston, C. and M. Bruder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 Winthrop Publishers, Inc.
- Taylor, B. P. (1983). Teaching ESL: In *Corporating a communicative student - centered component*. TESOL Quarterly, 69-88.
- Via, R. A. (1975).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ddowson, H. 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

〈△ 표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표현임〉

<친교활동>

○ 인사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하기

- △ Hello ! (Hi!)
- △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 △ Good bye (Bye-bye)
- △ So long
- △ See you later
- △ Take care
- △ Have a nice day
- Long time, no see
- I haven't seen you in ages
- Take it easy

--안부 묻기

- △ How are you ?
- △ How's it going ?
- △ How's your family ?
- △ How are things ?
- How everything ?
- How are you doing ?
- How have you been ?
- What's up ?

--안부 묻기에 답하기

- △ Fine, thanks.
- △ I'm okay. thanks.
- △ Not (too/so)bad, thanks.
- △ Not (too/so) good.

--안부를 제 3자에게 부탁하기

Say hello to your father (for me).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parents

.

○ 소 개

--자기 소개하기

△ I'm chi-young

△ My name's Chi-young.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

△ This is my friend, Min-ho.

I'd like you to meet my father.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to-you

--소개에 답하기

△ Nice to meet you

I'm glad / pleased to Meet you, Mr. kim.

It's a pleasure meeting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 감 사

--감사 표현하기

△ Thank you (very much)

△ Thanks a lot

I am very grateful.

I appreciate your help.

It was very nice of you to help me

--감사 표현에 답하기

△ Sure.

△ you're welcome.

△ (It's) My pleasure.

Don't mention it.

I was delighted to be able to help

○ 주의 끌기

△ Look.

△ Listen.
△ Excuse me.
△ Pardon me.
△ Hello, can you help me ?
You know what ?

○ 칭찬, 축하, 감탄

--칭찬하기

△ (Very) Good (for you)!

△ Well done !

Terrific !

Excellent !

That's neat.

(You did a) Good job

--축하하기

△ Happy birthday (to you)

△ Congratulations !

--칭찬, 축하에 답하기

△ How nice (of you)

△ you're so kind.

(It's) Nice of you to say so.

I'm glad you like it.

--감탄하기

△ What a nice bag !

△ How pretty she is !

--격려하기

△ Good luck !

△ Don't worry.

Cheer up

I'm sure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 약속

--약속 제안하기

△ How about tomorrow ?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at ten ?

What time shall we make it ?

Can you make it at ten ?

What shall we meet tomorrow ?

What please is convenient for you ?

--제안에 답하기

△ Sure

△ No problem

△ Sorry, I can't

Sorry, I have an appointment.

I'm afraid not.

I'd love to, but I can't.

○ 기원

△ Good luck !

All the best !

I wish you well.

Keep your fingers crossed !

I hope everything goes well.

○ 음식, 권유, 응답

--음식 권하기

△ Go ahead. Help yourself

△ Do you want some more cake ?

△ What will you have ?

Would you like some drink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

--승낙, 거절하기

△ Yes, thank you.

△ Yes, please.

No thanks. (I've had enough.)

No thank you. (I'd rather have some apples)

○ 대화의 시작, 끝맺음

Excuse me, Are you Mr. kim ?

Excuse me, Haven't we met before ?

Sorry, but I have to go now.

Nice talking to you, but I'm afraid I must be going.

<사실적 정보 교환>

○ 사실적 정보

△ How many apples (are there) ?

△ Do you have a pen ?

△ What time is it ?

△ Does he work in a store ?

△ Whose pencil is this?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in the morning ?

Could you tell me where Mr. Lee's office is ?

○ 사실 확인

--확인하기, 확인에 답하기

△ Is this your book ?

△ Aren't you Mr. Lee ?

△ Yeah, that's mine.

△ No, it's on the third floor.

○ 사실 묘사

△ She has big brown eyes.

△ My mother is a teacher.

He is wearing a blue shirt.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ark

○ 습관

△ I get up at seven everyday.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 경험

--경험 묻기 및 말하기

△ What did you do yesterday ?

Have you ever seen a rainbow ?

△ I met Su-mi yesterday.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film.
My brother has told me about it.

○ 계획

△ I'll play baseball tomorrow.
I hope to visit hawaii next summer.
I'm planning to take a math course.

○ 수정

That's not quite right
you've made a mistake.
I'm afraid you are wrong.
Sorry, you're mistaken.
Let me put it this way

○ 비교

△ I'm taller than you.
She us your age.

<지적 태도 표현>

○ 동의나 반대

--동의를 묻거나 말하기

Do you think so, too ?

Do you agree ?

△ Me, too.

△ Same here

△ That's right

△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point

I couldn't agree more.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반대하기

△ I don't think so.
I can't agree with you
I'm afraid I can't accept that

○ 제의, 초대

--제의, 초대하기

△ Can you join us ?
△ Would you like to come ?
△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

--제의, 초대 수락하기

△ OK
△ Yes, I can
△ Yes, I'd love to
△ (That) Sounds good
That's very kind of you

--제의, 초대 거절하기

△ (I'm)Sorry. I can't
Not this time, thanks.
Maybe next time.
I'd love to, but I've got another plan.

○ 제안

--제안하기

△ Let's go swimming
Shall we spend the weekend in Seoul ?
How about going to the park ?
Why don't you see a/ the doctor ?

--승낙하기

△ Great
△ Sounds good
△ Sure, you can
△ Of course, (you may)
Why not?
Yes, that's a good plan.
That's fine with me.

--거절하기

△ Sorry, I can't

△ I'm sorry, but I have other plans.

No, I'm afraid you can't

○ 기억

--기억 여부 묻기 및 답하기

Do you remember your first day at school ?

Don't know you?

Did you forget that ?

Yes, I remember it well.

I forgot about that.

○ 가능, 불가능

--가능성 묻기 및 표현하기

△ Can you swim?

Will you be able to go to the concert next sunday ?

△ Sure, I can

△ He can swim

I might be able to go with you.

--불가능 표현하기

△ Sorry, I can't

That's impossible.

I'm not sure if I can do that.

○ 확신하기

--확신 여부 묻기

△ Are you sure ?

Are you that you will pass the exam ?

Do you think Korea will win the next World cup ?

--확신, 불확실 말하기

I'm sure / confident that we will win

He will probably come.

Yes, it is likely

△ I'm not sure (about that)

I doubt if he will
Well. I don't think it's possible

○ 의무

You must talk to your teacher right away.
She has to study English now.
You're supposed to go your homework.

○ 허락

--허락 요청하기
△ May I go new ?
△ Can I have some more ?
May I see you next more ?
Is it OK if I open the window ?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

○ 지시, 금지

--지시하기
△ Open you book.
you should come home by six.
--금지하기
△ No, don't do that.
You shouldn't go down there.

○ 의견 표현

--의견묻기
△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think of this picture ?
Did you find the book interesting ?
--자신의 의견 말하기
I think it's a very nice bike.
To me, it's the best in the world.
△ I have no idea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I have noting to say right now.

<감정 표현>

○ 좋아함, 싫어함

--좋아지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묻기

△ Do (Don't)you like pears ?

You don't like bananas sons ?

What's your favorite song ?

What do you like doing do Sundays ?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말하기

△ I (don't)like apples.

△ I like to play baseball.

I like tomatoes.

I like kimchi most.

There's nothing like more than soccer.

○ 희로애락

--기쁨, 슬픔 표현하기

△ I'm happy

△ I'm sad

I'm glad to hear that

She is very pleased with the restaurant.

--슬픔을 위안하기

Cheer up

Don't take it so hard

Look on the bright side

--화난 것 표현하기

△ He is angry

I'm very unhappy about this

I'm very upset

It really makes me mad

--놀람 표현하기

△ What a surprise !

It's surprising

I just can't believe this

That's incredible !

I'm surprised you feel that way about it

○ 원하는 것

--원하는 것 묻기

△ What do you want ?

Do you want to eat out ?

Would you like to go home now ?

--원하는 것 말하기

△ I want a new cap

I'd like to go to sleep

He wants to buy a computer

○ 동정

--동정 표현하기

△ That's too bad

It's a pity

We're sorry to hear the bad news

Our thoughts are with you

I know how it feels

○ 소망, 의지

--소망, 의지를 묻고 말하기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

Do you intend to go abroad ?

I hope that she likes the present

I'm dying to see that movie

--기대 표현하기

It will be nice to swim in the river

I'm sure / certain that we'll have a good time

I'm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to night

○ 불평

That's not fair

I want to complain about this dress

This is most unsatisfactory.

<도덕적인 태도 표현>

○ 사과, 변명

--사과하기

△ Sorry(about, that)

△ Excuse me

It's all my fault

I owe you an apology

I can't tell you how sorry I am

--변명하기

I'm (terribly / apology)sorry. but it wasn't my fault

--사과, 변명에 답하기

△ That's OK

△ That's all right

△ Don't worry (about it)

Never mind

No problem

Don't mention it

It really doesn't matter at all

○ 후회

I wish I'd listened to my father

I wish I'd acted differently

○ 관심

--관심 묻기

Are you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

What are you interested in ?

--관심, 무관심 말하기

I enjoy swimming

My main interest is in collecting stamps

I'm not interested in sports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pop music

<설득과 권고>

○ 설득

Let's do it this way

Let's not waste time

Please let me try. I think I know how it works

○ 요청

--요청하기

△ Help me, please

Mail this letter for me, will you ?

Can you open the window, please ?

Would you do me a favor ?

Could you give me a hand ?

Would you please help me move the desk ?

--요청에 답하기

△ Sure, I can.

△ I'm sorry I can't.

I'm afraid I can't because I have to leave now.

○ 충고

--충고에 요구하기

Do you O should buy it ?

What would you advise me to go ?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

--충고하기

I think you should see a/ the dentist

If I were you, I'd walk

You'd better not go there

I suggest you go and see a/ the doctor

○ 경고

△ Be careful !

△ Watch out !

Stay away from that

Never do that again !

<문제 해결>

○원인과 결과

Why do you think the book is interesting ?

Can you tell me reason why you said so ?

(It's) Because I was sick

I got up late, so I missed the school bus

○ 길 안내

△ Is this Main Street ?

△ Where's the bus stop ?

△ Turn right

△ It's over there

Go straight

How do I get there from here

Excuse me.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Seoul Station ?

It's five blocks from here

○ 물건 사기

△ How much is it ?

△ May I help you ?

△ I'll take it

I'm looking for a blouse

Do you carry umbrellas ?

Here or to go ?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milk

○ 되묻기

△ Excuse me ?

△ What (did you say) ?

△ Here or to go ?

△ Pardon (me) ?

△ I'm sorry ?

You did what ?

You went where ?

I don't understand
I beg your pardon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

○ 이해점점

Is that clear ?
Are you with me ?
Are you following me ?
Do you know what I mean ?
Would you mind ?
Does that make sense?

○ 전화하기 및 받기

△ Hello ?
△ Is Min-ho there?
△ This is Mi-na speaking.
May I speak to Tom ?
Can I leave/ take a message ?
Can I leave/ take a message ?
Sorry, he is out
Who's calling, please ?
May I ask who's calling ?